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믿는 자들도 남아있는 이때에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크리스천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종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9:10)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5호 2013년 6월 1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주 양대 장로교단(KPCA-KAPC) 일제히 총회



KPCA 제 38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KAPC 제 37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총회”

총회장 호성기 목사 부총회장 노진걸 목사

KPCA 제38회 총회

해외한인장로회 제38회 총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총회”(고후 10:5)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려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장 호성기 목사(필라노회) △목사 부총회장 노진걸 목사(서중노회), 장로 부총회장 이대연 장로(뉴욕노회) △서기 김중훈 목사(뉴욕노회) △부서기 유영기 목사(LA노회) △회록서기 이기성 목사(캐나다서노회) △영여회의록서기 Jason Noh(영어노회) △부회의록서기 심규섭 목사(동남노회) △회계 박순태 장로(서남노회) △부회계 이지수 장로(서노회).

첫날 저녁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호성기 목사 사회로 기도 김순철 장로(부총회장), 성경봉독 박성규

목사(서기), 찬양 필라안디옥 교회 찬양대, 설교 강대는 목사(“미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총회”, 창49:22-26), 성찬식(집례 호성기 목사), 축도 김재동 목사(직전 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는 총대출석확인, 개회선언, 교단기 제창, 절차보고, 환영, 선관 위 보고에 이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부총회장 호성기 목사가 총회장에 선임됐다.

신임 호성기 총회장(필라안디옥 교회 담임)은 취임인사를 통해 “망이 부족하다. 26년간 길러주신 총



총회장 호성기 목사



부총회장 노진걸 목사

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못해 회개한다”며 “지난 회기 총회장님을 보필하면서 많이 배우고 총회에 대한 긍지가 생겼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총회를 열심히 섬겨 더욱 발전하는 총회가 되겠다고 결단했다. (3면으로 계속)

“새로운 시작”

총회장 엄영민 목사, 부총회장 정관일 목사

KAPC 제37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남수 목사) 제 37회 총회가 “새로운 시작”(출3:1-5)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4일까지 LA웨스턴 호텔에서 개최돼 총회장에 엄영민 목사(남가주노회/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를, 부총회장에 정관일 목사(캐나다노회/토론토 가든교회)를 선출했다.

신임 총회장 엄영민 목사는 “총회가 넓은 아량으로 저 같은 사람도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마련한 것에 감사하다. 부총회장으로 한해를 섬기면서 전총회장 서기 총무 등 많은 구임원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지난 한해는 유난히 어려움이 많아 10년이 한해 같았다.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다음은 제 37회 KAPC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엄영민 목사(남가주노회) △부총회장: 정관일 목사(캐나다노회) △서기: 고택원 목사(필라노회) △부서기: 김지영 목사(북미주노회) △회록서기: 조부호 목사(뉴욕서노회) △회계: 김용생 장로(뉴욕노회) △부회계: 김조인 장로(가주노회).

이번 총회는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와 같이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으며 극심한 진통 속에 진행됐다. 첫날 회의를 인도할 예정이었던 김남수 총회장은 서가주노회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의장석에서 물러나야했으며 엄영민 부총회장이 의장으로 회의를 인도했다. 둘째 날에는 노회장들이 모임인



총회장 엄영민 목사



부총회장 정관일 목사

공천부 모임을 가진 후 오전 11시 20분 회의가 속회됐다. 공천부는 서가주노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 임사부를 조직해 통과시켰다.

토의 끝에 3개의 안을 내 △1안: 임시부 안을 수정하자(명단에서 빠져야 할 사람을 빼자) △2안: 3개의 서가주노회를 모두 1년간 사고노회로 하자 △3안: 지난해 총회에서 호명한 총대명단을 사용하지 않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3개의 서가주노회를 모두 1년간 사고노회로 하자 2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정회했다(1안 21표, 2안 121표, 3안 42표, 무효 6표).

(3면으로 계속)



2면

허상 쫓는 “위대한 갯조비” 온전한 사랑 결어



3면

중국, 세계 최대 성경 수출국 되다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연인 황의영 목사(SBM 대표)



14면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4)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 합동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UNITED PRESBYTERIAN OVERSEAS CHURCH

제 35회 총회 소집 공고

성삼위의 은총이 총회산하 대회 및 노회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35회 총회를 소집합니다. 서둘러 등록하여 주시고 총대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주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43:19)

- 일시: 2013년 6월18일(화)오후 3시-20일(목) 12시
- 장소: 사이판 세계선교영광교회(장동익 목사 사무) P.O. Box 505246 Saipan, MP 96950 TEL (670)288-4315/070-8245-3917

- 총 대 비: \$100.00(부부 동반 시 \$150.00)
- 호텔 / 식사: 총회, 태평양노회 및 호스트교회 제공
- 유 의 사 항: 호텔예약 관게로 6월10일까지 노회별로 참석자 명단과 함께 항공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등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사 항: 미국에서 직접 GUAM을 경유하여 SAIPAN에 오실 경우는 UNITED AIRLINE을, 한국을 경유하여 오실 경우, ASIANA AIRLINE이 운행 중이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위원장: 장동익 목사 ●670-288-4315(E-Mail: Jang3927@gmail.com)
- 총 무: 김병구 목사 ●670-235-2004/483-9800(E-Mail: tic5656@hanmail.net)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 합동총회

총회장 조 환 목사 서기 박성은 목사
411 N. Sabana Barrigada Dr, Barrigada Heights, GU 96913 ●671-635-7800-1/637-5389



시론

“점검하며 삽시다”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1994년 10월 21일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 1,160.8m의 4차선 다리 중 10-11번째 교각 48m가 무너져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해외에도 대서특필되어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국가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었다. 이 대교는 1977년에 착공하여 약 2년6개월 만에 완공하였는데, 14년 밖에 되지 않은 다리가 왜 붕괴되었는지 그 원인이 밝혀졌다. 건설 당시 Truss(철강 구조물)식 공법으로 건설되었기에 이음새가 잘못되면 무너지기 쉬운데 정

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고, 볼트 삽입과정 중 볼트를 무리하게 집어넣다가 구멍의 모양이 변형되어 볼트의 강도가 약해졌으며, 이음새 용접은 10mm 이상 되어야 하는데 8mm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다리의 설계 하중이 32.4t인데, 이를 초과하는 과적 차량(40t 이상)들의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 약 2년에 걸쳐 철저한 복구공사를 통해 8차선으로 확장한 성수대교는 트러스가 붕괴되어도 차량이 한강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낙교 방지턱까지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자 뉴욕중앙일보 10면(국제면)에 “시애틀-밴쿠버 잇는 다리 붕괴”란 기사가 났다. 워싱턴 주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잇는 5번 프리웨이 왕복 4차선 다리의 일부 구간이 무너져 차량 3대와 사람들이 물에 빠졌으나 다 구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다리는 지난 1995년에 건설되었는데, 과적차량이 다리 구조물을 들이받아 붕괴되었다 한다. 지난 2007년에도 미네소타 주에서 대교가 붕괴되어 13명이 숨지고 14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리 붕괴사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시공업체들이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정기점검을 충실히 했더라면,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리 붕괴에 대한 사고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점검해 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세심하게 점검해 볼 것이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브리지(Bridge)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고 있는지, 죄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관계는 소통이다. 가족구성원들 간에 성도 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는 인간관계에 소통의 결함이 생기면 시작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결국 가정의 붕괴,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신앙생활의 체크 리스트(Check List),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점검하며 고쳐나 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사 시공도 설계도면에 따라 해야 하듯 그리스도인의 삶도,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도 성경의 원칙에 충실하면 부실 신앙인의 양성, 부실 직분자의 양산도 막아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나갈 것이며, 나아가 어떤 세상 풍파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4의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란 말씀처럼,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자주 돌아보아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에 일어날 더 이상의 비극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허상 쫓는 “위대한 갯츠비” 온전한 사랑 걸어

CT, 자수성가로 미국인 드림 일군 “갯츠비의 복음” 보도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은 상영 전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영화 “위대한 갯츠비”를 호평하고 있다. 1920년대 광란의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했다. 미국 소설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Fitzgerald)의 유명한 동명소설을 영화로 옮긴 로맨틱 드라마가 일반 버전과 3D 버전으로 개봉했다. 그러나 비주얼에만 치우친 나머지 화려함만 가득하지, 첫 사랑을 쫓는 자수성가한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는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미국인들 모두가 동경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갯츠비의 왜곡된 인간상만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티너티투데이(CT)는 최근 “갯츠비의 복음”(The Gospel of Gatsby and Draper: What if self-made man wakes up one day and hates himself?)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갯츠비의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아메리칸 드림”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지적인 결과나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어진 운명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미국인들은 열광한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영웅들은 커트 워너(Kurt Warner)처럼, 슈퍼마켓 직원에서 NFL 전설로 남아야 하고, “C 학점”과 “맥주”에 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던 오마바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 것을 찬양한다.

게 한눈을 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옛 연인을 만난 데이지는 사랑의 감정을 되살린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순탄치 않다.

바즈 루어만 감독 작 “위대한 갯츠비”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만났다 헤어지는 남녀의 스토리 중에서 백만장자가 된 이후의 갯츠비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화려한 비주얼에만 치우쳐 다보니 영화가 두 남녀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매우 간략히 축약해 보여주고, 둘이 처음 어떻게 사



만들어내고 현란한 카메라워크를 사용하는 등 비주얼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배우들의 존재감과 연기력이 눌러버린 것이 바로 문제다. 소설로서 “위대한 갯츠비”는 사회소설이다. 소위 ‘재즈시대’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1920년대를 배경

인물들을 쓸쓸히 바라보는 관조자다.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는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다. 간조롭게 수놓아져 있는 베를 위의 씨실과 날실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 생각의 얽힘과 설김 같은 혼돈의 모습이다. 그 혼돈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도덕성 결여 비판 사회소설 남 위해 자신 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

한국식 속담으로 “개천에서 용났다” 식의 아메리칸 드림은 그만큼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제이다.

“위대한 갯츠비”에서 갯츠비는 첫 사랑인 데이지를 얻기 위해 작정하고 돈을 벌며 자수성가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1925년 발표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원작소설 내용은 익히 알려져 있다. 피츠제럴드의 통찰하는 묘사력이 아니라면 그저 통속이라 할 만한 줄거리다. 갯츠비(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젊은 날 데이지(캐리 말리건)와 사랑을 나눴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쟁터로 간다. 가난하게 살던 데이지는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잊고 부자인 톰(조엘 에저튼)과 결혼했다.

그런데 갯츠비는 데이지에게는 잊혀져가던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놀랄만한 행운을 안고, 땀 흘려 노력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된다. 옛사랑을 잊지 못하는 갯츠비는 다시 고향 마을에 돌아와 데이지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지만, 남편 톰은 마을 정비공의 아내에

랑하게 됐는지, 갯츠비는 왜 그 오랜 세월을 두고도 데이지를 잊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을 쏟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마치 갯츠비는 거의 맹목적으로 데이지에게 반한 사람같이 보여질 정도이다. 가난해서 무시당했던, 어린날 갯츠비의 마음의 상처는 어떤 것이었는지, 갯츠비는 어떤 생각과 노력으로 부자가 됐는지, 매우 중요한 스토리의 연결고리들도 소홀히 다루어져 있다.

이 영화가 만일 갯츠비의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좀더 진하게 그려다면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그 화려한 파티엔 이루기에 너무 힘든 꿈을 가졌던 한 남자의 쓸쓸함이 묻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다.

결국 영화 “위대한 갯츠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공황이 찾아오기 직전의 퇴폐적이고 흥성한 당시 미국 율부들의 방탕한 분위기를 한껏 풍기는 분위기가 영화 전반을 이끌어갔기에, 두고 볼만한 영화라 는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3D를 도입하고 웅장한 배경을 CG로

으로 하여 시대적인 현상이었던 황금만능주의와 도덕성 결여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만능주의라든지 인간성 황폐화와 같은 도시화의 문제점들이 등장한다. 그 시기에 는 금주법이 제정되면서 주류 밀수업이 성행했다. 이 소설은 그 ‘재즈 시대’를 살아가던 미국인들의 모습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몇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갯츠비’가 시대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주류 밀수업자다. 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는 갯츠비와 그 주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을 옮겨줘려 애를 쓰지만, 이야기는 끝내 갯츠비의 죽음이라는 파국으로 끝나고 만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 자리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빈 공간만 남는다.

결국 갯츠비는 데이지를 얻기 위해 주류 밀수업이라는 위험한 도박으로 거부가 되지만 과연 그가 진정으로 데이지를 사랑했는가 여운으로 남는다. 다시 말해서 갯츠비는 예수처럼 기꺼이 남을 위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인가?

(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Summer Special Global Leadership Seminar

June 13, 2013, 9:00 am- 5:00 pm, June 14, 9:00 am- 12:00 pm



Rev. Shemchenko
Russia Christian Leader
Russia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러시아 기독교의 오늘과 미래”



Dr. Bob Fu
President of China Aid, IFPP Director
“Christianity in China and Leadership”
중국기독교 리더
“중국의 기독교 리더십”



Bill Federer IEC Presid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n Minute
“Christianity in America and Leadership”
“미국의 기독교 리더십”



Dr. Kum Y. Kim,
President of Midwest Alumni
“Korean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의 미래”



Dr. James Song,
President of Midwest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총장
“글로벌리더십 개발”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문의의 손동원 교수 covenant@unitel.co.kr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eminar

Prof. Sung Joon Kim
(St. Louis University Ph.D Candidate)
Blended Courses - CC 502, CC523
ICA Certificate
June 10-14, 2013



27th Anniversary
Graduation Ceremony
June 14, 2013, 3:00 pm



27th Anniversary
Midwest Summer Concert
June 14, 2013, 7:00 pm

Register Now ! e-mail to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usa@midwest.edu
(636) 327-4645, St. Louis, Missouri

중국, 세계 최대 성경 수출국 되다

이코노미스트, 아미티 재단 출범으로 성경 부족국 탈피 보도

1980년대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성경 부족으로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 돌려보던 시대를 거쳤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성경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근 중국의 성경 수출에 대해 보도했다(In the beginning was the ideogram: China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producers of bibles in the world).

복음주의 리서치단체 퓨포럼의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5%로 그 규모가 6,7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기독교인은 8천2백만 명의 중국 공산당 당원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중국 기독교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지난 1988년 한 NGO 단체가 설립됐다. 아미티 재단(Amity Foundation)라고 불리는 이 단체는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기독교위원회(China Christian Council)와 영국에 본부

는 600명의 근로자들이 한 해 1,800만 권의 성경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 아미티가 만들어낸 성경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스와힐리어(Swahili), 주루어(Zulu), 러시아어를 포함하여 90개 언어에 이른다. 아미티는 지난 2012년 1억권째 성경을 제작해 사내에 전시하고 있다.

아미티는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중국 내 유일한 성경 출판소이다. 이러한 독과점이라는 지위 때문에 아미티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또한 아미티는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



중국 내수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기독교인의 성장세를 따라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기독교위원회는 아미티가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55,000개의 '공식' 교회에만 성경을 판매하

Harvest)의 해터웨이(Paul Hattaway)는 중국에 여전히 성경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터웨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은밀하게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으며,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까지 6

2012년 1억권째 성경제작... 영어, 스와힐리어 등 90개 언어로 한해 1,800만권 생산, 중국내 4백만권...가정교회 판매는 불법

를 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연계돼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기증한 인쇄기계를 사용해 아미티는 설립 첫해 50만 권의 성경을 생산했는데, 지난해(2012년)에는 1,2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아미티는 세계 최대 성경 인쇄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지난 2008년 아미티는 상하이 근처의 난징에 최신 설비를 갖춘 시설로 옮겼다. 이 새 시설

해 값싼 성경을 제작 수출, 외화를 벌여 들인다는 비판도 받는다. 실제로 2011년 아미티가 제작한 성경의 2/3 정도가 수출됐다. 늘어나고 있는 수출에 비해 아미티 성경의 중국 내 판매는 정체가 있는데, 연간 4백만 권 정도만이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자선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Aid)'의 설립자 푸(Bob Fu) 대표는 아미티의

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푸 대표는 설명했다. 즉 수십만에 이르는 중국의 '비공식' 가정교회들은 아미티의 성경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비공식' 교회와 '공식' 교회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가정 교회는 여전히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중국 교회의 성경 부족분은 여전히 외국 단체들이 메우고 있다. 미국 의 선교단체 아시아하베스트(Asia

Harvest)의 해터웨이(Paul Hattaway)는 중국에 여전히 성경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터웨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은밀하게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했으며,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까지 6

백만 권 이상의 성경을 지하 기독교인들에게 배포했다. 중국 안휘(Anhui) 성에 거주하는 가정교회 지도자 루(Lu)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성경을 구하는 것이 수월해졌지만, 아직 성경 배포 상황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은 다행히도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아미티에서 제작한 성경이라고 루는 밝혔다.

KPCA 제38회 총회

(1면에서 계속)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총회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로 등록된 강신권 목사(서노회)와 박성진 목사(로스앤젤레스노회)가 2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하자 선거조례에 따라 전임총회장단이 추천한 노진걸 목사(올리온장로교회)와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표대결을 벌여 195 대 65로 노진걸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이대연 장로가 단독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둘째 날 아침 경건회는 캐나다동노회장 고영민 목사 사화로 기도 이대호 목사(LA노회장), 설교/특강 김명용 장신대 총장("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 눅4:16-19), 축도 한인성 목사(유럽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회무처리가 계속돼 37회 총회장 보고, 37회 임원회 보고, 사무총장 보고, 정책정치위원회 보고, 전도선교위원회 보고, 고시위원회 보고에 이어 선관위, 사회봉사위원회, 차세대목회, 총회재판부, 교육신학위, 여성교회, 장로연합회, 회계보고의 순서로 보고했다.

현의안으로는 △공동의회 회원을 18세 이상으로 개정 △일본노회 가입 △시카고신학대 폐교 △목회자연금기 설치 △총대인원수 증선은 세례교인 600명 증가 시 목사 장로 각 1인씩 증선 △신학부: 뉴욕신학대 유제도 학장 안찬수 이사장 인준, 미주장신 김인식 이사장 인준, 뉴욕신학대 이사회정관 인준 △총회 19개 부서 및 위원회를 11개 위원회로 축소 △총회날짜는 매년 5월 둘째주인 지난 화요일부터 △총회예식서 출판 △뉴저지노회 월 드미션센터 건립 폐기 등을 결의했다.

37회가 재정은 수입총계 32만3천488달러, 지출총계 26만6천339

달러로 보고했다.

수요자녀예배는 호성기 목사 사회로 기도 이대연 장로(부총회장), 찬양 필라안디옥교회 찬양대, 설교 손달의 예방통합 총회장("역사를 창조하는 교회", 행13:1-3), 축도 김장길 목사(전 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날 아침경건회는 박화근 목사 사회로 기도 정철 목사, 설교 김명용 장신대총장("세상의 평화를 위한 평화의 길", 마5:43-48), 축도 이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회무처리에 들어가 감사위원 선출, 공로패 증정, 폐회예배를 마쳤다.

해외한인장로회 산하에는 이번이 가입된 일본노회 등 20개 노회에 446개 교회, 목사 933명과 교인 8만8천명이 소속돼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 가입된 일본노회(노회장 김규동 목사, 동경요한교회)는 33개 교회(기도처 11곳 포함)에 8천명의 교인들이 있다.

이번 총회 내빈으로는 대한예수

교장교회(통합) 손달의 총회장, 장신대 김명용 총장, 미국장로교한국교회협의회 임형태 총회장, 문정선 사무총장 등이 방문했다. (유원정 기자)

KAPC 제37회 총회

(1면에서 계속)

이에 일부 서가주노회 관계자들이 반발하며 큰 소란을 벌였다. 총회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제1의 서가주노회 중심의 총대들은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자신들이 합법적인 총회임을 주장하며 총회 임원진을 발표했다.

이때 서가주노회 관련 총대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 지난해 총회에서 서가주노회 소속 총대는 모두 84명이지만 현재는 3개 노회로 분열돼있는 상황이다.

한편 셋째 날 저녁 속회에서 사고노회로 결정된 서가주노회(노회장 서중현 목사)와 일부 총대들은 총회결정사항에 반발해 이탈총회

사 고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에 위 협하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의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해 합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중준, 장영춘,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해천 목사로 강의의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미국내 우송료 포함)

담임목사 청빙

아르헨티나 중앙교회는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1972년 8월 6일에 설립된 교회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남미 노회에 속되어 있으며 합동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하며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목회 경력 5년이상 시무하시고 만 40세에서 50세 되신 분으로 청빙합니다.

(1) 제출서류

1.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2.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상)
3. 개인 및 가족 소개서
4. 목회 계획서
5. 학위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7. 최근 본인설교 2편(인터넷 동영상 1편)
8. 현재 사역교회의 주보 1개월분
9. 현재 사역교회 홈페이지 주소
10. 현재 시무목사 추천서 2명이상 (추천인 서명날인 및 밀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전형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개별인터뷰
- * 서류심사 통과자만 개별통지후 인터뷰

(3) 제출처

1. Av. Castañares 1435 . Cp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Chung Ang
2. E-mail: chungang.ar@gmail.com
3. Facebook.com/chungang.ar
- Tel: 0054-11-4921-9395/0509/8860

(4) 제출방법

1. 우편이나 E-mail.
2. 기한: 주후 2013년 7월 31일까지 (2013년 7월 31일까지 발송인 찍힌것 유효)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을 책임자 선정문제로 난상토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

다. 회의가 길어져서 모두들 그 회의에 대해서 마음으로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한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결단의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걱정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절에서 십자가를 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들은 예수님만이 나를 위한 제물로 죽으셨기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둔 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안 믿던 분들까지도 잘 믿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첫째는 병들었을 때입니다. 또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되면 그렇게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고 잘 믿는 가 하면 또 가졌던 돈이 싹없어지면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도 잘 믿게 되더라고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아픈 대가를 치루기 전에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한 제물로 죽으셨기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둔 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도 안 믿던 분들까지도 잘 믿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첫째는 병들었을 때입니다. 또 자식이 죽을 지경이 되면 그렇게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고 잘 믿는 가 하면 또 가졌던 돈이 싹없어지면 그렇게 안 믿던 사람들도 잘 믿게 되더라고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아픈 대가를 치루기 전에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내가 죽어도 못다 갚을 죄값으로 나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형벌로 이미 결정된 것이었지만 그 모든 죄값을 없애버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씻기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전쟁이 끝났지만 아랍을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특공대 다시 말하면 아랍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몸에 지니고 미군부대나 미군에게 접근해서 그 폭탄을 터뜨림으로 미군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랍의 민족들을 위해서 그가 제물이 되겠다고 자처했지만 그는 죽어도 그는 진정한 제물은 못 됩니다. 오직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신 분이요 야만 내 모든 죄에서 형벌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인생의 고난, 게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충분히 치러주시는 나를 위한 제물 속죄양이 되신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일찍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푸 / 른 / 초 / 장

허상희 목사
(뉴저지 성도교회)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이 지난 후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과거 40년 전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강하게 보이는 아낙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고생하고 이제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힘들게 하지 않을까? 가나안을 바라보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가시는 하나님

이심을 알려주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길을 경험한 것이 무엇이나?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걸어온 길에서 그분이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분을 보고 우리를 안고가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앞으로 우리를 안고 가실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을 같이 너희가 걸어가길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만 후회 없는 허무하지 않은 귀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안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나님께 나 없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서가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십니다(3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3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앞에 서서 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앞에서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만 후회 없는 허무하지 않은 귀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안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나님께 나 없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서가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은 경험을 해오면서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다. 모세는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였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

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짐승이 부르짖는 무서운 광야에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렘32: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때 내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안에 있는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가길에 나를 안고 가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세요? 내가 느끼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평의 말을 합니다. 느끼

없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예비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앞서 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신1:30) '예비'란

입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그 길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도 이러한 위기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16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교만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낮추시고 좀 겸손한 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되어라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안고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에 불평이 아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마치 막은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는 없습니다. 축복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갖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마침내 승리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고가시는 하나님

(신명기 1:28-33)

다(신1:31).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도 안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나님께 나 없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서가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을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서입니다. 너무 사건을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늘 광야만 바라보니 결국 무서움과 두려움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안고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내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신1:3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먼저 가서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짓고 계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앞에서 미리 준비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23:20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일 일도, 장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것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2013-2014년 신입, 편입생 모집중

- 대상: 6th ~ 12th
- 인원: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2013년 9월 5일
- 특징: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1-20발급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6학년 12학년)

www.njuca.org

문의 전화

TEL. (609) 954-2900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당신의 자녀, 손자와 손녀, 조카들을 5월 중순에서 5월 말에 있을 왜곡되고 비도덕적인 "Harvey Milk Day" 로부터 보호하세요! (하)

Harvey Milk Day의 History

Equality California라는 동성애 권익보호 운동그룹이 후원하여 2008년 2월 캘리포니아의 여러 민주당 상원의원(Senators)과 하원의원(Assembly members)들과 함께, 이번 SB 48을 선두적으로 이끌고 제출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Mark Leno(당시에는 하원의원)에 의하여 AB 2567(Assembly Bill) 발

표하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동성애운동가" 홍보가 매우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름을 적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잘못 가고 있는 앤(Anne) 같은 사람들, 동성애자들, 오바마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동성애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하기 위함이나 그들의 회개를 위

볼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방법을 아래에 적었다.
1. 학교에서 '할비 밀크 데이'를 지키는지 알아보기.
2. 학교에 편지/이메일 보내기 또는 학교 찾아가기, 또는 주위 크리스천 학부모들과 함께 School District 찾아가기
3. 같은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천 학부모

선교사적 입장...악을 분별할 기회 될 수 있어 신앙 약하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

의안이 제출되었다가 주지사 아놀드 슈와츠네거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 2월, 같은 동성애권 운동가들과 같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하여 SB 572(Senator Bill)이라는 것이 다시 제출되었고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와츠네거에 의하여 Harvey Milk Day가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기념일이 됐다.



재미있는 것은 2009년 할비 밀크는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이라는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 당시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후원을 받아 "할비 밀크의 날"은 더 탄탄하게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에서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다.
참고로 할비 밀크는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하여 2002년에 이미 "the most famous and most significantly openly LGBT official ever elected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명칭을 받았으며, 스스로 할비 밀크의 캠페인 매니저라고 하는 동성애 운동가 Anne Kronenberg에 의하여 캘리포니아에

님들과 학교와 선생님들, 리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참고로 학교에 학생/자녀를 보내는 경우 '할비 밀크의 날'에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선교사적인 입장으로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오히려 악을 분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신앙이 단단하지 않고 아직도 어린 자녀/학생들이라면 그날은 부모님들과 함께 의학적/사회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날들에 대하여 함께 토론도 하고 동성애자들과 이런 날을 잘못 수행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날이 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더 자세한 사항과 내용들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TVNEXT.org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자녀들을 위해 영어자료가 필요하다면 savecalifornia.com이나 TVNEXT.org로 가면 영어 쪽과 연결되어 있다.

허상 쫓는 "위대한 갯츠비" 온전한 사랑 결여

(2면에서 계속)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 인생은 스스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되고 싶은 희망이 있으면 만들어가면 되고 누구도 당신의 인생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

서 알버트 까뮈의 소설,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영원토록 언덕 위로 돌을 굴러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주어진 운명에 유일하게 반항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돌을 즐겁게 굴러나가면 된다.
결론으로, 갯츠비는 자수성가한 갯츠비라는 이미지만을 숭배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남보다는 자신의 이미지 안에 갇혀 살았기에 진정한 자유가 무

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어갔다. 참 자유는 바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때만 가능하고, 남들 역시 나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된다. 갯츠비는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위대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커다란 저택에서 연일 밤 화려한 파티로 새벽을 맞이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의 하나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졸업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늘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안보면 불안하여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원고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청중과의 눈 마주침이 없이 설교하기에 시원하지 못하고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 다이내믹한 설교스피치를 위해서는 원고를 초월해 청중과의 눈빛 교환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렌지에서 김 목사

A: 저 역시 설교원고를 철저히 준비하여 컴퓨터로 내용을 다 타자해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고 설교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원고에 매달 보면 청중과의 눈빛 교환은 힘들게 되고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함을 느끼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이내믹한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원고 작성은 철저히 하되 그 설교할 내용을 거의 암기 하드시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전문성악인에 의하면 같은 곳을 적어도 일만 번 이상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해야 어떤 여건 하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본능적

충분히 준비한 후 서면 성령께서 자유함 주실 것

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설교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암기하여 수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국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담임목사인 이태근 목사가 쓴 "스피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권투에서의 승부는 최초 눈싸움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무수히 날아와 꽂히는 시선에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스피치의 승부는 자신감이 결정하며 스피커의 자신감은 눈빛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습하여 암기한 상태에서 청중 앞에서 서면 자신감으로 총탄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당황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한 후에 강단에 서면 성령님께서 자유함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빛에 민감합니다. 애완견들도 주인의 눈빛을 읽는데 하물며 사람이 눈빛을 못 읽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스피치는 눈과 입으로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눈빛을 분산해야 합니다. 눈빛은 교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 사람씩 눈맞춤을 하며 전체를 훑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들은 설교자와 눈빛이 마주친 사실 하나만으로 뿌듯해 하고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도 따라 웃어야 하고 비전을 말할 때는 섬광을 내고 진심을 말할 때는 진지한 눈빛을 보내야 신뢰를 받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보내야 할지 몰라 원고만 보든지 천장만 보면 청중들은 불안해합니다. 스피커는 콘텐트에 맞는 눈빛을 표현해야 합니다. 콘텐트에 따라 부드러운 눈빛과 웃는 눈빛 때로는 강렬한 눈빛 등 콘텐트에 맞는 눈빛을 표현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목회자는 웃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전문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훈련한 적이 있는데 잘 웃지를 못하는 처음과 마지막은 그래도 웃도록 하라고 합니다.

표정은 말을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특히 설교할 때는 표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얼굴표정연습을 거울을 보면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에는 거기에 걸맞는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단어에 표정을 넣어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8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으로 가질 수 있는 표정이 670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6700개의 표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표정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하와이'라고 발음하며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활짝 웃는 미소보다 은근한 미소가 좋습니다. 어떤 성악가는 저에게 자기가 찬양할 때는 표정을 장미꽃 좋은 냄새를 맡는 그런 표정으로 노래한다고 합니다.



목회서신

죽어야 산다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존경 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에 공금횡령으로 기소된 목사, 7계(간음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목회를 감행하고 있는 목사,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대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변명,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

려는 목사 등등. 어디 가서 목사와 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죽어야 산다”는 종류의 책들이 많이 유행되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바라는 분들이 그 분들만은 아닐 것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

을 받기 이전부터 한국교회 체질개선을 바라며 걱정하고 갈등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이다. 한미 가정연구원 원장이시고, 가정사역 전문가이신 차호원 목사(박사)도 “목사가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칼럼(코리아뉴스, 2008년 11월26일(27면)에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18가지 목사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1)구멍가게처럼 교회 매상(현금) 올려놓았다고 자랑하는 목사들 (2)변호사 앞세우고 법정을 드나드는 목사들 (3)허위 학위를 걸어놓고 자랑하는 목사들 (4)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기도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들 (5)감투 명에 좋아하는 소위 정치꾼 ‘먹사(食使)’들 (6)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운영하는 목사들 (7)10억을 11조 하는 교인 12명을 달라고 조르는 목사들 (8) 퇴직금 적다고 교회를 쪽박내는 목사들 (9)‘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반대교인을 원수처럼 대하는 목사들 (10)잘못된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목사들 (11)하나님의 공의를 무시워하지 않는 목

사들 (12)예수의 제자보다 내 교회, 내 제자들만 키우는 암체 목사들 (13)교인 머릿수에 매달리는 물량주의 목사들 (14)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개척했다고 주인 행세하는 목사들 (15)길목 좋다고 바로 옆 교회 가까이 교회를 마구 세우는 목사들 (16)하나님 행세하는 목사들 (17)교회재정(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는 목사들 (18)대접만 받고 베풀 줄 모르는 목사들. 그러나 한국교회가 완전히 절망할 단계가 아니다. 이벤트와 행사에 치우친 전신적, 위선적 종교행위에서 탈피해야 한다. 권위주의, 성장주의, 물량주의, 물질만능주의, 기복주의신앙, 신비주의, 교단교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회가 진

리와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를 양산하는 산실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미스바의 회개운동과 같은 철저한 회개의 종교개혁과 갱신의 때가 되었다. 먼저 목사들이 자존심, 체면, 의, 권위의 탈을 벗는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엡1:22, 골1:18).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살리셨다면 그리스도의 대리자 위임자인 목사도 죽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한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정신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십일조 생활 철저할수록 빛 없고 넉넉”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에 비해 경제사정이 나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백스텝제너러시티 등 미국 교계 단체들은 미전역의 십일조 준수 교인 4413명의 신앙·헌금·경제생활을 조사, 분석한 ‘스테이트오브더플레이트’ 연례 보고서를 22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십일조를 내는 크리스천의 80%는 신용카드 빛이 없고, 74%는 자동차 할부 미납금이 없으며, 48%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미납금이 없다고 밝혔다. 28%는 어떤 종류의 빚도 없다고 답했다. 반면 십일조를 지키지 않는 크리스천 중 38%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33%는 “빚이 너무 많아서” 십일조를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 18%는 “배우자가 동의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발행한 브라이언 클루스 목사는 “십일조를 지키는 교인은 ‘그래, 십일조를 꾸준히 내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있는 거야’라고 믿는 반면 십일조를 안 지키는 교인은 ‘그래, 저 사람들은 잘사니까 십일조를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십일조 준수 교인의 77%는 소득의 11~20%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히 소득의 10%를 내는 경우는 23%에 그쳤다. 또 70%는 순수소득이 아닌 총소득에 근거해 십일조 금액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십일조 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20대 이전이 6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어릴 때부터 십일조를 생활화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1000만명의 교인이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십일조로 낸다고 밝혔다. 1000만 명이면 미국 전체 인구(3억1600만명)의 3.2%에 불과하다. 미국인의 70% 이상이 스스로 기독교인(기독교 포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십일조 준수 인구가 적은 편이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인구의 8% 정도였던 십일조 준수 인구는 2002년 6%, 2007년 5%, 2011년 4%로 계속 감소했다.

클루스 목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바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십일조를 멈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상홍증인회 미국서 사기혐의 소송당해

이단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교회 지남달 사기와 사생활침해 등의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단전문 월간지 현대종교에 따르면 한국 하나님의교회 본부와 하나님의교회 대표 장길자 씨가 지난달 19일 미국 뉴저지 주 소재 하나님의교회 탈퇴자에 의해 법원에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미셸 콜론씨는 193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하나님의교회는 자신들을 비영리자선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범죄기업이며, 이를 감춘 채 헌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콜론 씨는 이어 “하나님의교회 측에 이익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자 개인 이메일을 해킹하고, 신도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다”며,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신도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에 진출한 하나님의교회는 그동안 비영리자선단체로 등록돼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소송에서 헌금을 이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토네이도는 신의 징벌?’

오클라호마 주 무어를 쑥대밭으로 만든 토네이도가 기독교계에 후폭풍을 몰아치고 있다. 기독교계, 특히 개신교 쪽에서 토네이도를 ‘신의 징벌’로 이해하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성경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개신교계 내 보수 극단주의 그룹에 이어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67) 목사가 전별론에 가세하고 나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파이퍼 목사는 토네이도가 무어를 휩쓸고 지나간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구약성서 욥기의 일부 구절을 게재했다. 파이퍼 목사는 정기적으로 성경 구절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지만, 교계에서는 ‘사막’이 오클라호마 주를 뜻하는 데다 토네이도가 강타한 뒤 트윗 글을 남겼다는 점에서 토네이도가 갖는 기독교적 의미를 상기시킨 것이

란 해석이 뒤따랐다. 그는 지난 미국루터교회 교단 총회 기간에 세기가 약한 토네이도가 오자 동성애에 대한 신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고”라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트위터 팔로워만 50만 명에 이르는 등 토크 워런 목사 등과 함께 미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이자 신학자다.

그의 트윗은 큰 반향을 낳았다. 유명 복음주의 작가인 레이철 에번스가 “하나님은 선하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며 모든 비극을 신의 심판과 연관 짓는 행태를 멈추자고 호소하는 등 학계와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드러내놓지 않을 뿐이지 파이퍼 목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가 적지 않다.

교계에서 유명 블로거로 알려진 더그 윌슨 목사는 “이제 기독교회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강건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대놓고 전별론을 옹호했다. 미국 독립 전례교(WBC)의 지도자인 프레드 펠프스 주니어도 최근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프로농구(NBA) 스타 제임스 콜린스(워싱턴 워저즈) 때문에 토네이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콜린스의 ‘커밍아웃’과 이에 대해 지지와 찬사를 보낸 NBA 올스타 오클라호마 썬더의 케빈 듀런트 선수의 행동에 “하나님이 열을 받아 오클라호마를 박살냈다”는 게 펠프스의 해석이다.

프,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15만명 시위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15만 여명(경찰 추산)이 26일 파리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시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와 가톨릭교도로서, 동성애자들의 평등한 권리는 인정하지만 결혼이나 입양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소수로 시작한 시위대는, 이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에 불만을 가진 야당 정치인들과 극우세력까지 합류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집권 사회당 본부에 올랑드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배너를 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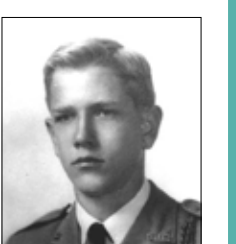


경제 침체와 10% 넘는 실업률, 재정 감축과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8일 동성결혼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14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 커플의 입양을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프랑스 곳곳에서는 시위가 이어졌다. 전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철로 된 바리케이트에 몸을 묶어 시위하던 59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21일에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던 78세 노인이 노트르담 성당에서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

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누엘 발 내무장관은 “우리는 극우 세력의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 29일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첫 동성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 ‘한국전 영웅’ 소개

미국 조지아 주 롬에 살고 있는 마지 네빌(62·여) 씨는 지난해 집에 있던 오래된 여행용 가방을 종교품으로 팔기 위해 먼지를 털어내던 중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다. ‘제롬 맥거번’이라는 남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본 네빌 씨는 인터넷에서 이를 검색해 맥거번 형제 추모 사이트를 찾아냈다. 그는 즉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혹시 제롬 맥거번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문의했고,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에 살고 있는 찰리 맥거번(81)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네빌 씨가 갖고 있던 가방은 한국전 전성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제롬 맥거번 형제 가운데 동생인 제롬의 것이었다. 6남매 가운데 셋째, 넷째였던 로버트와 제롬은 지난 1951년 1월 30일과 2월 10일 한국전에서 잇따라 전사했다. 이후 로버트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제롬은 ‘은색 훈장(Silver Star)’을 각각 추서받았다.

제롬은 1950년 한국으로 향하는 배에 타기 직전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에서 가족들에게 “내 가방을 보낼 테니 여기에 담겨 있는 옷가지 등을 동성 찰리에 물려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가방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다. 이 가방은 이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조지아 주 롬의 버드 듀크라는 여성의 마구간으로 흘러들어갔고, 듀크 씨가 이를 마지에게 넘긴 뒤 무려 6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존 켈리는 27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이런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가방이 지금은 로버트와 제롬의 동생인 찰리의 집 지하실에 자리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 가방에 두 형의 사진과 편지 등을 담고 있는 찰리는 “형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잊혀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어 있어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린다.

“당신의 목회에 혁명을 일으켜라!”

‘목회자의 날’ (6월 5일) 기념 초교파 목회자 부부 영적세미나

목회가 힘드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십니까? 목회에 더 큰 힘을 얻고 싶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등록비 식사 무료

2013. 6. 3(월) - 6(목) 수원흰돌산수양관

<초청강사> 고 훈 목사, 김항안 목사, 이경은 목사, 정인수 목사

주강사 | 윤석전 목사

등록 필수 : 전화 ☎ 1566-3004)를 통하여 등록 (선착순 5000명)

인터넷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cdc.net)를 통해 등록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수원흰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 찾아 오시는 길 : 수원역에서 32번, 33번 발원버스(당당하리 하차) ※차량운행 / 흰돌산수양관 입구(당하리) → 수양관(월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경품 행사 소형차 3대 최신형 노트북 인쇄기 외 다수

주최 : 한국교회정보센터 ■ 문의 : Tel. 1566-3004 / 연세중앙교회 선교부 02-2680-0001 ■ 수원흰돌산수양관 Tel. 031-227-3111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안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 (5)
"Hear, O Israel" -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나.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신앙교육 방안

영성강화와 더불어 투철한 정신 무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요셉과 같이, 혹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며

1.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명령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필수적인 명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들의 각성과 특별한 사명의식 고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시대의 주인공으로 역사를 빛낼 인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3.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면 당당하게 맞서서 대응하는 참된 믿음과 용기를 발휘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함께하시는 믿음으로 무장하면 사자와 맞서서 싸우고 골리앗 앞에서 결코 물러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해져서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유대인들에게서 자녀교육의 방법론을 터득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철저히 본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산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5. 성경에서 교육원리를 터득하고 그 이론과 실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기초한 신앙생활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SBM에서 개발한 학습이론(Echo-way Learning Theory)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6. 형통과 번영보다 고난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육상에다 조막을 치고 거기서 온 가족이 함께 조막절을 지키며 과거에 조상들이 출애굽의 고난을

이룹니다.

7. 생각 바꾸기, 행동 바꾸기, 영성 바꾸기를 구체적으로 학습합니다.

기독교인양은 그 기본이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마16:24). 동시에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1)말씀의 신앙화, (2)신앙의 생활화, (3)생활의 문화화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해온 SBM의 교재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모두 흥미가 진전해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 학습을 통해 지식이나 이론주에서 실천과 행동으로, 삶을 바꾸는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맺는 말 -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사명

세상은 물질문명의 급격한 발달

이번 주제가 일회적인 세미나로 끝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전문가들을 통해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는 기독교교육의 근본적인 원리(fundamental principles)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창의적인 교재(creative textbook)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과과정(systematic curriculum)에 의해 철저히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내용을 요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 이를 철저히 수행해온 유대인들에게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3.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가치관(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신6:4, 5).

4. 먼저 교육의 주체(부모)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합니다(신6:6).

5. 생활 속에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학습시켜야 합니다(신6:7-9).

6. 가정에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기독교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7. 이를 위해 연구하고 준비한 SBM에 적극 동참합니다. 아울러 미주크리스천신문이 구심점이 되어 하나의 network를 형성해가기를 제안합니다.

▲연락처: sbm01@hotmail.com /www.sbm.kr

(끝)

창의적 교재개발, 체계적 교과과정 통해 철저히 양육 성경적 가치관 확립, 크리스천 정체성 드러내도록 교육

체득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교육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라도 수난주간에 단 하루만이라도 온 식구가 금식하며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전통을 수립해봅시다. 절기는 전통문화의 핵심을

에 의해 놀랍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부패와 타락의 현상이 소동과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사역 칼럼

아버지로서의 남성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모일 것이다. 부모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가? 하고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날 현실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과연 아버지란 존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아버지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는 우리들 생명의 근원으로서 가족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

나의 선친(나의 아버님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다)께서는 일제시대와 6.25사변을 지내시면서 험한 세월을 사셨던 분이데, 사상적인 문제에 걸려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지계품을 파시기도 하고 동리의 재화용품을 모으기도 하시며 6식구의 생계를 꾸려가시기 위해 안간힘을 다 쏟으셨다. 원래 전쟁 전에는 고향 마을 이장까지 지내셨지만 생계의 위협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을 내던지고 뛰셨던 것이다. 부족하나마 나 자신의 삶에 성실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선친의 모습 속에서 배운 것이리라 본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정서적인 안

정감을 공급해주어야 하는데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 특히 아버지로 부터 적절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탈선하기 쉬우며 딸은 딸대로 탈선하기 쉽다. 방황하는 십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과 은혜(용납)를 받지 못한 때문이라고 한다. 소년원의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대한 극도의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 자신 사실, 아이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물론 깨닫지 못한 채 지나오다가 어느 날 되돌아 본 나를 피해 아이들이 각자의 방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 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

겠다"고 다짐하며 새벽기도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아이들이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처음 아이들에게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멋져 하고 쑥스러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입에서도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랑의 표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에 때늦은 후회스런 탄식을 할 지 모른다.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자녀들이 기대하는 아버지는 자신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인생선배로서 무엇이든 적절 대담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는 듯하다. 곧 교사나 인생의 선배로서 교사나 상담자로서의 역할인 것이다.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해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 아버지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상 현대의 산업화 속도가 워

낙 빠르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해답을 찾아 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필자의 경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잘 못해주다가(그 때는 아내가 애를 많이 썼다) 이제 늦기 전에 아이들과 좀 가까워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잘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나 다뤄야 할 주제들이 너무나 전문화되고 어려워져서 도와줄 능력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 우리 가족의 경우 미국에 건너온 지 얼마 안되어(이제 만 2년이 되어감) 고교생 아이들(11학년과 12학년) 둘이 참 힘들어 하고 있다. 그래도 필자의 경우는 선교지에서 영어를 썼던 경험도 있고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받았던 관계로 나름대로 언어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나 자신의 실력이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러거나 나름대로 도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배움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와의 인간관계라고 본

다면 아버지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일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곧 철이 들어가면서)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할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조언과 권면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바라는 우리 아버지들이 모두 자녀들에게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항상 찾아오고 싶고 찾아와 주는 친구 같은 상담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잘 모르는 것은 아이들에게 묻거나 배우도록 한다. 2)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두도록 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엄청난데 그 찾는 방법을 익혀두도록 한다. 3)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 4)아이들의 친구들을 익혀두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안부를 물어본다.

▲이메일:familykum@gmail.com

JoyLA.com Sale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엔백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눅 2권:다~욥 3권:욥~사 4권:사~욘 5권:욘~말 6권:말~히 7권:히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들이 이해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38. 젊은 지구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증거 (4)지구 자기장

지구 자석이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나침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러나 이 자기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더욱이 이 자기장이 성경적인 지구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으며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감추어져 있는 것 같다.

태양풍은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말 것이다. 오존층은 지구의 생명체 생존에 정말로 중요한데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아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

년 전 지구는 지금보다 40%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국제 표준자기장의 기록을 보면 불과 30년 만에 1.4%의 에너지 감소가 있었다. 이런 자료들은 자기장이 매 1465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 자기장이 일정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젠가 자기장이 존재하는 사건(시작)이 있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지구의 시작을 소급해 볼 수 있다. 지난 170여 년간 측정된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수학적으로 처리하면 지수함수의 곡선이 나오는데 그 식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과거 자기장의 세기를 예측하고 지구의 시작을 예측해 본 결과, 지구는 15,000년, 아무리 길어도 20,000년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지구가 이보다 더 오래되었다면 자기장이 너무 세고 지구온도가 너무 높아 물이 모두 증발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는 물이 많이 있으므로 지구 자기장 감소를 통해서 보면 지구의 나이는 수만년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고 믿는다.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하면, 현재의 지질은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역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역사상 단 한번의 격변인 노아홍수의 격변 결과 확실하다. 그러므로 지자기 역전이 기록되어 있는 암석들도 역시 노아홍수 때 형성된 것이다.

한 예로 지자기 변화가 하루에 6도, 용암이 굳는 동안에만 60도나 변한 증거도 노아홍수의 격변 과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장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은 많은 에너지를 잃었을 것이므로 지구의 시작은 20,000년이 아니라 6000년 정도로 더 짧게 계산이 된다.

4. 하나님의 디자인

지구와 가까운 달이나 금성이나 화성은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 없다. 금성과 화성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구만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화성에 식민지를 개척하겠다고 지원자를 모집

오존층 유지하는 지구자기장 점점 약해져 100년마다 5%씩 감소 지자기 역전현상 과정서 많은 에너지 잃어 지구나이 6천년 불과

1. 지구 자기장과 그 역할

자기장을 학문적인 말로 설명하고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힘이 강한 자석과 약한 자석의 차이는 자기장을 이루는 자력선의 밀도에 달려 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므로 지구의 자기력선도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게 된다(이때 지구의 N극은 남쪽이고 S극은 북쪽이다. 관측적으로 나침반의 N극은 북쪽을 가리키도록 해두었다). 이 원리를 사용하여 나침반이 발명되었는데 자기장의 북극과 실제 정북과는 약 11.3도의 차이가 있다. 자기장은 극지역에 가까울수록 강하고 극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는데 지구의 자기장은 수만 km까지 펼쳐져 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태양풍은 태양의 높은 에너지와 온도에 힘입어 태양의 인력보다 더 큰 운동에너지로 태양의 입자들이 튀어나와 만들어진 입자의 흐름이다. 이 입자들은 대부분 전자와 양성자들로 지구에 오로라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자기장은 이 입자 흐름의 방향을 바꾸어 태양풍이 직접 지표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에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이

는 빛인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피부 세포를 손상시켜 피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강한 자외선은 생명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살균하는 공정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다. 다행히도 이런 유해한 자외선들은 지상 35km에 펼쳐져 있는 오존층에서 거의 다 제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오존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장은 지구 생명체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의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2. 지구 자기장과 지구의 나이

과학자들은 지난 1835년부터 자기장의 강도를 측정해오고 있는데 그 강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측정 결과는 매 100년마다 5%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1000

3. 노아홍수의 격변과 지구 자기장

지구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과거에 지구 자기의 극(N극과 S극)이 여러 번 뒤바뀐 적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자기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 지구의 N극이 S극이 되고 반대로 S극은 N극으로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이 있었던 사실은 암석에 들어 있는 자성 물질들의 배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지자기 역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간에 별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속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수십만년 전에 있었고 자주 있었다고 믿고 있고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홍수 기간에 있었



지구 자기장과 성경의 역사

좌측: 작은 구슬 모양의 지구가 자기장 덕분에 태양풍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 그림. 지구 자기장의 역할과 강도 그리고 과거 지구 자기장 역전 현상 등도 불과 수천 년의 짧은 역사를 말하고 있는 성경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런데 그들은 지원자들을 화성까지 데려다 주기만 할 뿐 지구로 귀환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박장대소할 뉴스였다. 화성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더욱 확실한 것이 창조의 중심은 지구다. 그 크기가 크고 수가 많을지라도, 모든 천체들은 지구를 위한 장식품들에 불과하다(창 1:14-19). 그런데 이 지구가 창조된 목적은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사45:18). 자기장을 비롯하여 풍성한 물, 공기의 비율, 태양과의 거리, 달의 크기와 거리 등이 생명을 위한 조정된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구를 비롯한 우주에 성경대로 6000여 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으나, 사람은 타락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이메일: mailforwus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몇 해 전 중국 상하이에서 '성품 이노베이션' 가정성품 치유세미나를 진행하던 중에 한 여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엄청난 외처증으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듯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멍 자국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일편단심으로 쫓아 다니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을 향한 헌신인 줄 알고 결혼을 결심했다며 이 여인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편집증 같은 증세였고 지나가는 남자에게 우연히 눈길만 돌려도 그날은 여지없이 온몸에 폭탄 같은 주목세례를 받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듣다보니 남편의 외처증 증세가 정도를 넘어 살인미수 행위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됐는데 왜 속수무책으로 맞고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더욱이 답답한 것은 아빠가 집안에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 10대인 자녀들이 문을 닫고 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냥 맞고만 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참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참으면 끝에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는지 묻자,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매달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냉담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참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나는 지 예고해주면서 남편에게 외처증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권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두며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리지만 뚜렷하게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좋은나무성품학교의 7세 어린이가 생각해서 입가에 안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나 어느 음식점에 들르게 되었는데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더군요. 음식을 시켜놓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성품을 배운 아이가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너 인내 배웠잖아, 인내해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경악하게 "엄마,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식점에서 참고 기다리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는대?"라고 되물더군요.

결국 정확하게 인내라는 성품의 개념을 알고 있는 아들에게 감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히10:36)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필수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약속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 오늘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들은 바로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자 만드실 분들께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납품해 드립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제 6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6백여명 참석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 6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가 지난 26일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연합회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북가주 오클랜드 Sequoyah Community Church(담임 David Beiser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3)라는 주제로 30여 민족교회 600여명이 모여 특별히 오클랜드 지역의 암흑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찬양했다. 아울러 미국의 회



다민족 콘서트에서 크로마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한인교회 팀들

복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소원하며 모인 이번 콘서트에서는 미국 내

모든 민족의 복음적 교회 초교파 세대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일치를 이루며 화복과 결속을 가졌다.

대회장인 정윤명 목사(월넛크리지GIM교회 담임)는 이 연합행사를 통해 여러 민족들이 교회 연합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 올네이션스 연합 중보기도 컨퍼런스 그리고 글로벌 다민족 국제선교대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미국 다민족 대형교회인 Neighborhood Church of Castro Valley, Oak Park Christian Fellowship, Shiloh Community Church, Allen Temple Baptist Church 등 미국 주류교회가 중심이 돼 한국교회를 비롯한, 이스라엘 기독교회중(Messianic

Jew)과 러시아, 아시아, 라틴, 아프리카, 태평양아일랜드 등의 30여 민족이 연합해 준비했다.

Neighbor Hood Church 대학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각 민족들이 고유의 전통의상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다하는 찬양과 함께 열방의 부흥을 함께 소원했다. 특히 국제적인 치유사역자이며 바이올리니스트 Maurice Skla, 남침례교단 독창자 Lori Cooper의 찬양이 있었다.

Steve Willhite 목사(Park Haven 침례교회 담임)와 Nola Boyd(Oak Park크리스천센터)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대회장 정윤명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Rosemary Schindler(Shiloh Church) 목사의 개회기도와 David Beiser 목사(Sequoyah Community Church)가 “Every Tribe”(계7:9-12) 제목으로 “문화와 언어와 세대의 차이는 있어도 구원받은 모든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와 일치의 공동된 사명의 연대를 갖자”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온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의 공동체로 결속하며 모든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다. Miriam Cerna 목사(라티노 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제35회 미주총신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학위수여자들과 학교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주총신대학교 제35회 학위수여식

박사 12명, 석사 12명, 학사 4명 총 28명 학위수여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는 2013학년도 제35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을 25일 오후 4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석대운 목사)에서 열고 류기중 전도사 등 2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본교 이사장 김연도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은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서기 강운순 목사가 기도, 총신교로이 찬양을 했으며, 안명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총회장)가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왕하 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교학처장 전철영 박사가 학사보고, 김근수 총장이 학위후회, 그리고 하귀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정치부장)가 격려사를, 석

대운 목사가 축사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정진기 목사(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35회 미주총신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명예기독교교육박사: 이충선 △기독교교육박사: 심영섭 △목회학박사: 나덕주, 남공수남, 조기산, 진신섭, 한정숙, 이정화, 한광철, 이종우, 김경식, 김은정 △신학석사: 정문주, 김인경, 김형복, 김수재 △목회학석사: 류기중, 김인호, 김경희, 정진숙, 정윤태, 남진정, 박정섭 △교회음악석사: 이지선 △신학사: 김혜선, 이진희 △교회음악학사: 원유선, 김제인.

(박준호 기자)

6개 교회찬양대, 주민 450명 참석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제8회 다문화 음악축제

리치몬드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최하는 제 8회 다문화 음악축제가 지난 19일 열렸다. 지역 내 흑인교회, 백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아시안 교회 6개 성가대 및 찬양팀과 지역주민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음악축제는 각 인종 교유의 문화가 담긴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축제의 시간이었다.

배현찬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John Free(메시야 그리스도교회)의 기도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메시아(Messiah)크리스천교회 찬양팀의 수준높은 CCM 찬양과 이스트민스터(Eastminster)장로교회 성가대의 흑인 특유 소울풍의 영감 있는 찬양,

(10면으로 계속)



예배인도자모임과 KPLA가 공동주최한 예배사역 익스피리언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예배사역 익스피리언스 세미나 성황

최지호 주강사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 등 강의

남가주 예배인도자모임(대표 최재준 목사)과 KPLA(대표 김성아 전도사)가 공동주최하는 예배사역 익스피리언스 세미나가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강의는 최지호 선교사(예배사역연구소 공동대표)가 주강사로 나서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 ‘회복되어야 할 예배 리더십’, ‘예배팀 사역과 훈련의 가이드라인’ 등의 제목으로 세 번의 전체강의를 인도했으며 김성리 목사(남미워시슬 대표), 박운선 목사(은혜한인교회 워십리더), 박지범 목사(생수의강선교회 예배목사), 박종술 목사(KCCC Worship & Art Ministry Director), 이천 목사(The Church L.A.), 정유성 목사(메델한인교회 예배목사) 등이 색션강의를 맡았다.

최재준 목사는 “찬양사역자들이 집회와 찬양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됐다. SNS를 통해 모임을 만

들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작년 2월 6명이 처음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사역자들과 모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와중에 최지호 목사와의 만남이 있었고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게 됐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관계를 통해 시작됐다. 이번 세미나는 찬양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 같다”고 세미나 개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최 목사는 “찬양사역자들의 공동된 고민은 연합이 안된다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이번 모임에 참석한 분들이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됐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가능하지 않았다 싶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배사역세미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주최 제 8회 다문화 음악축제를 마치고 찬양팀들이 기념촬영 했다.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담임목사: 전희수 교역자: 케티리언</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nynglor@yahoo.com</p>	<p>기쁨과 영광교회</p> <p>담임목사: 전희수 교역자: 케티리언</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p> <p>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nynglor@yahoo.com</p>	<p>뉴욕갯세미네교회</p>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새벽기도회: 오전 8:30</p> <p>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p>뉴욕목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ny.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기도회: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461-2810(Fax: 김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p>
<p>뉴욕순복음인도교회</p>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ell. (718)938-1777 45-8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p>	<p>뉴욕중부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3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p>	<p>뉴욕초대교회</p>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18)3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뉴욕효신장로교회</p> <p>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p> <p>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전 1:30 6부 E/M&M: 오후 3:00 7부 늦은예배: 저녁 7: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p> <p>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예배: 오후 8:30 (매주 주, 3부)</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리빙스톤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영양예배: 오전 11:45 수요저녁예배: 오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롱아일랜드성결교회</p> <p>담임목사: 김석형</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p>
<p>선한목자교회</p> <p>담임목사: 황영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주요저녁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p>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원호</p> <p>주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1:15 매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규성</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a.org</p>	<p>퀸즈한인교회</p>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 오후 1:30 NCF: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org</p>	<p>한마음침례교회</p> <p>담임목사: 박마이클</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남부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성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요저녁예배: 오전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p> <p>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p>	<p>덴버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1: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택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권도: 오후 8:30 유치, 워너, 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볼티모어교회</p> <p>담임목사: 이영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p> <p>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p>
<p>샬럿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요새벽기도: 새벽 6: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요저녁예배: 오후 8:00 주요찬양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팩스)김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attle.org</p>	<p>알칸자 제자들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jas.com</p>	<p>앵커리지델린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델린교회</p> <p>담임목사: 하해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온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l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주저녁(사, 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요저녁예배: 오후 8:00(월-금)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p> <p>Tel. (253)55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한)</p> <p>Tel. (253)535-6207, 531-8424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수명</p> <p>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템피자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p> <p>www.kpccaz.org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란</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074 Fax. (718)886-4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p>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6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허드슨밸리 리조트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문의: (718)886-4040

한기부 뉴욕협 3대 회장 취임예배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뉴욕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 3대 대표회장 취임예배가 6월 13일(목) 오전 10시 플라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신임회장으로 이종명 목사가 취임한다.
▲문의: (718)354-6609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음악회

뉴저지 웨스트우드 소재 그레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장학범 목사)에서 멕시코 선교를 위한 선교음악회를 갖는다. 일시는 6월 8일(토) 오후 7시30분이며 출연에는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소프라노 장미자, 테너 윤길용, 바리톤 조성용이며 그레이스할렐루아찬양대가 협연한다.
▲문의: (201)358-8733

CTS뉴저지방송 오픈 감사예배

기독교방송 'CTS New Jersey' (사장 한은경) 오픈 감사예배가 6월 6일(목) 시 뉴저지 나비박물관에서 열린다. CTS뉴저지방송은 CTS의 뉴욕 뉴저지 지사로 위성방송 디렉TV 채널 2087을 통해 미주지역에, 뉴저지, 코네티컷, 롱아일랜드 지역에는 케이블비전 채널 1156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문의: (201)840-8073

안태호 목사 추모 장학생 선발

뉴저지침례교회(담임 허성식 목사)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초대담임 안태호 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생 선발은 신학생 3명과 미국 거주자로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거나 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 세례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홈페이지(www.truelight.net) 참조.
▲문의: (201)390-0470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본받으라”

동부개혁장신 2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신 24회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체육대회 배구 경기 모습

뉴욕교협체육대회 종합우승 예일장로교회 제28회, 10개 교회 27개 팀 참가 배구 축구 경합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한 제28회 체육대회가 예년과 같이 메모리얼데이인 27일 플라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열린 체육대회는 10개 교회에서 27개 팀이 참가해 배구, 축구 2개 종목에서 경합을 벌인 끝에 뉴욕예일장로교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참가 팀이 적어 축구 게임은 열리지 못했다. 경기결과와 같다. ▲배구 여자팀-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성진 목사),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 △중고등부-뉴욕예일장로교회EM △남자 중고등부팀-뉴욕예일장로교회A,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 뉴욕성결교회 △EM팀-뉴욕주노교회(담임 김연수 목사), 아스토리아연합감리교회(담임 진성인 목사), 뉴욕성결교회 △장년팀-뉴욕베데스다교회, 뉴욕주노교회 △배구 MVP-신용수(뉴욕예일장로교회 중고등부) ▲축구-뉴욕주노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만백성교회(담임 김성찬 목사),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 △축구 MVP-김호중(뉴욕주노교회) △승원상-아스토리아감리교회△종합우승 뉴욕예일장로교회.

뉴욕사모기도회 장소이전 공고

매주 월요일마다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왔던 뉴욕사모기도회(회장 이연주 사모)가 안창의 목사의 은퇴를 계기로 6월 10일부터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로 장소를 이전한다. 뉴욕사모기도회는 1990년 6월부터 모임을 시작해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다. 기도회가 시작될 당시 30-50대였던 사모들은 이제는 50-70대를 맞았다. 23년간 임원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뉴욕사모기도회는 15명 정도의 사모들이 소속되었으며 초교파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교계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2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27일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당에서 열려 목회학사 8명 등 12명이 학위를 받았다. 장영춘 목사는 학장훈시를 통해 “목회를 잘하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예수님을 본 받기위해서는 온유와 겸손함”을 강조했다.

졸업예배는 부이사장 전덕영 목사 사회로 기도 이원호 목사(이사), 성경봉독 장영일 목사(캐나다분교 교무처장), 찬양 글로리아선교중창단, 말씀선포 이용걸 박사(이사장), 학사보고 문경환 박사(학감), 학위수여 장영춘 박사, 시상 장영춘 박사, 이원호 박사, 훈시 장영춘 박사, 졸업생을 위한 기도 순한권 목사(동문회장), 격려사 김풍은 박사(이사), 축사 정관일 박사(캐나다분교장), 김선만 목사(이사), 답사 이양미 졸업생대표, 기념품 증정 졸업생이 학교에게/정신수 졸업생대표, 재학생이 졸업생에게/소유영 재학생대표, 광고 김혜천 목사(총무처장), 축도 강기봉 목사(학선처장)의

사), 뉴욕성결교회 △EM팀-뉴욕주노교회(담임 김연수 목사), 아스토리아연합감리교회(담임 진성인 목사), 뉴욕성결교회 △장년팀-뉴욕베데스다교회, 뉴욕주노교회 △배구 MVP-신용수(뉴욕예일장로교회 중고등부) ▲축구-뉴욕주노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만백성교회(담임 김성찬 목사),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 △축구 MVP-김호중(뉴욕주노교회) △승원상-아스토리아감리교회△종합우승 뉴욕예일장로교회.

한편 예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이번 체육대회에 대해 교협은 교회별 가족수련회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원정 기자)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담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담전 6:11-12)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졸업생들은 하나님에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목회현장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교만과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를 쫓아야 한다”며 “자기절제를 통한 자신과의 싸움”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개혁신앙”을 역설했다.

캐나다 분교장 정관일 목사는 축사를 통해 “졸업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세상의 졸업은 경력과 전지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위수여자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 김치인 김현경 박종원 이양미 이민섭 이송훈 이종주 정인수 △기독교교육석사: 신선화 조제인 여교역학: 장효순 △신학사: 윤승진 △최우수상: 이양미 △우수상: 김치인 △공로패: 정인수 △이사장상: 정효순.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금공제번호 발급·영어명칭 변경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공제(EIN) 번호를 받고 기금 모금 및 사역에 힘을 더하게 됐다. 동 기구는 지난 23일 오전 퀸즈 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린 5월 월례모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이로써 동 기구를 후원하는 모든 개인, 단체들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종명 목사의 인도로 기도 권개더린 목사, 설교 김영환 목사,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뉴욕성결교회 담임)는 “요즘을 행통케 한 믿음”(창 39:1-6, 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으며 둘째, 하나님은 나쁜 환경에서도 복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셋째,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어 하

나눔을 두려워했다”며, “꿈을 가진 자에게 인도하시는 시련을 통해 충실하고 집중하고 삼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위에 서서 행통하게 되는 역사가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페루 사랑의 집짓기 단기사역(9월초 예정)은 무효화 시켰으며, 웹사이트 재개 및 활성화, 소식지 ‘노병이여’에 광고 삽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EIN번호 발급에 따라 기구 영어명칭을 BGEA(The Bread and Gospel of Eastern America Inc.)로 변경했다. 이외에 지난 달 모임에서 결의된 이사회 조직 및 12월 후원자 초청의 밤은 그대로 보고했다. 다음 월례회는 6월 20일(목)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장소 추후 공고). (유원정 기자)

(9면에서 계속) 사우스민스터(Southminster)장로교회 성가대의 격조 있고 아름다운 성가,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퍼스트유나이티드(First United)장로교회의 환상적인 화음과 깊은 영성을 느끼게 해준 합창, 히스페닉 순복음교회(Living Water)의 남미풍의 열정적인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은 주 예수교회(Lord Jesus) 성가대의 한국적 신앙의 강한 힘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다. 마지막 피날레는 참석한 각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이 함께 무대로 나와 한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How great is our God)”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How great Thou art)”을 찬양했다. 이어 Shady Clark Jr. 목사(Easminster장로교회)의 축도와 평화의 나눔시간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인종과 교단을 넘어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으로 마쳤다. 1997년 Eastminster장로교회와 주 예수교회의 친선예배로부터 시

작해 지난 16년 동안 회를 거듭할 수록 발전해온 다문화 음악축제가 올해는 참여교회들의 다채로운 특별 공연으로 재미를 더했다. Southminster장로교회(백인)의 유스 학생들로 구성된 아일랜드 민속 춤 공연과 Eastminster장로교회(흑인) 유스 학생들의 Praise Dance 공연은 백인과 흑인 문화를 온 몸으로 표현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또한 참석교회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인종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에도 계속되기를 소망했다. 수여자는 Kiara N. Jefferson(Eastminster), Natalia Delcid(Living Water). 2부 저녁식사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참여교회 성도들이 한국의 전통음식들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베틀 서더랜드(Music Director, Eastminster)는 행사 직후 감사사한을 보내기도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 교회속에 뒤돌린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진실된 성령운동으로 바른 영성을 노리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배경 /주석/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유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원 구입시 \$25 each

성경, 찬송가 각종 기독교서적 전문 취급 도서 음악 교회용품 신약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미디어,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웹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예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이중동역기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인공위원, 드레스,깁방영복 목자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인공위원, 드레스,깁방영복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이블 아플렛(도매부) 기념때 현금부투 주보 각종 기념품 주문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능!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원음에 가까운 연주 -본체 고품질 스피커 -USB 호스트 기능 -SD카드 사용 -터치스크린 방식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플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전문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왕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용품(17종당 1돈종) 신년특대 유망특대 -설교자 시력보조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621 S. Virgil Ave. Suite 200 L. A., CA 90005 213-925-5434

남가주지역 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VBS)

교회	일시	문의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	6/5(수)-8(토)	(213)975-1111
안디옥장로교회(지운성 목사)	6/11(화)-14(금)	(818)249-2871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6/12(수)-15(토)	(909)622-2324
남가주주님의교회(한의준 목사)	6/8(화) - 21(금)	(626)965-9191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목사)	아동부:6/18(화)-22(토) 영아부:6/20(목)-22(토) 유치부:7/11(목)-13(토)	(626)965-3443
글로벌선교회(김지성 목사)	6/19(수)-21(금)	(626)201-3362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6/19(수)-21(금)	(714)772-7777
디사이플교회(고현중 목사)	6/20(목)-22(토)	(949)502-4923
충현선교회(민종기 목사)	6/20(목)-22(토)	(818)549-9191
사우스베이사랑의교회(고동화 목사)	6/21(금)-22(토)	(714)615-7622
동양선교회(박형은 목사)	6/24(월)-26(수)	(323)466-1234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	6/25(화)-28(금)	(562)677-7777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엄영민 목사)	6/25(화)-29(토)	(714)899-9191
베네티한인교회(손인식 목사)	유초등부:6/25(화)-28(금) 유아 유치부:7/9(화)-12(금)	(562)774-5559 (714)604-7122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6/26(수)-28(금)	(323)913-4499
새생명오아시스교회(김일형 목사)	6/26(수)-29(토)	(323)730-70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양성필 목사)	6/26(수)-29(토)	(626)912-6600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6/26(수)-30(주일)	(949)910-1686
가나안교회(이철 목사)	6/27(목)-29(토)	(562)866-0980
나성남포교회(한성운 목사)	6/27(목)-29(토)	(310)327-8778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6/27(목)-29(토)	(714)719-3435
토렌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	6/30(주일)-7/3(수)	(310)370-5500
ANC은누리교회(유진소 목사)	4-6학년 캠프:6/30(주)-7/3(수) KidsWinC: 7/1(월)-3(수)	(661)904-9501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7/12(금)-14(주)	(213)481-2779
얼마인침례교회(한중수 목사)	유아/유치부:7/15(월)-17(수) 1-5학년:7/17(수)-20(토)	(949)857-9425

남가주지역 한인교회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여름성경학교(VBS)를 일제히 시작한다.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를 시작으로



갈멜산기도원에서 주최한 교계원로목사 초청 잔치에 참여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미주갈멜산기도원 원로목사회 초청잔치

미주갈멜산기도원(원장 조성근 목사)은 23일 오전 11시 남가주 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이기홍 목사)를 초청,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미주갈멜산기도원 본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친교의 시간으로 나눠 진행했다. 원로목사회 회장 이기홍 목사의 사화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박용석 목사 기도, 강영창 목사 성경봉독에 이어 조성근 목사가 '일어나 함께 가자'(마26:36-46)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목사는 참석한 모든 원로목사님들의 노고와 사역 여정을 치하하며 "기도가 식어가고 진리가 퇴색돼 가는 있는 이 시대에 한국과 미

주교계를 이끌어 가셨던 원로목사님들의 눈물어린 기도가 대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말씀에 이어 미주갈멜산기도원과 조국과 미국,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유응연 목사가 특별기도를 드렸으며 차태화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갈멜산기도원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남가주 원로목사회는 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5월 30일 드립교회, 6월 6일 인랜드교회에서 정기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장신대 여름학기 무료 ESL 및 학위수여식
미주장신대(총장 이상명 박사)는 여름학기 무료 ESL을 8월31일(토)까지 갖는다. 20일(월)부터 시작한 ESL 강의 내용은 문법, 작문, 읽기/토론, 듣기/발표, 뉴스/신문 영어, 드라마 영어, 토플준비 등이다. 한편 오는 6월1일(토) 오전 10시에는 제33회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학위수여식 장소는 남가주 동신교회(담임 손병렬 목사,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 문의: (562)926-1023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12주년 감사예배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는 설립 12주년을 맞아 6월 2일(주) 오전 11시 감사예배 및 정순회, 신명도, 흥귀인, 김선의, 김희원, 서미숙, 김정란 시무권사 취임식을 갖는다.
▲ 문의: (213)481-2779

제 24집 크리스천문학 출판기념회
스물네 번째 크리스천 문학을 출판기념 기념회가 1일(토) 오전 11시 작가의 집(2410 W. James M. Wood Blvd)에서 열린다.
▲ 문의: (213)249-0771, (310)612-9580

코랄리움 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겸 시연회
코랄리움 합창단(지휘 이경원)이 주최하는 제5회 정기연주회 겸 시연회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6월 8일(토) 저녁 7시30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213)590-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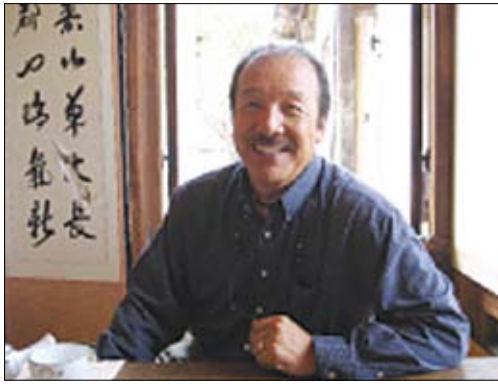
한미특수교육센터 자녀교육 세미나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양한나)는 오는 7일(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풀러튼 소재 뉴라이프미션센터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갖는다. 'ADHD의 심리치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크리스틴 김 임상심리학 박사 강사로 서머 주의산만 또는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성인들이 ADHD로 인한 증상인지에 대한 진단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 문의: (562)926-2040

샌디에고 교회연합부흥회
샌디에고 교역자협의회(회장 김명락 목사)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연합감리교회에서 '세계를 그대 품안에'라는 주제로 연합부흥회를 개최한다. 감사 이희돈 박사.
▲ 문의: (858)571-5509

YNOT재단 제3회 기금모금 만찬
YNOT재단은 제3회 기금모금 만찬이 오는 6일(목) 오후 6시 Luminarias레스토랑(#500 W. Ramona Blvd, Monterey Park)에서 'Faith in Action: Inspiring Our Community' 주제로 개최된다.
▲ 문의: (323)342-2808 스텔라김 사무국장

멕시코 Amor Mission 서진원 목사 소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서진원 선교사(사진)가 지난달 20일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서진원 목사의 장례일정은 23일 오후 7시 30분 LA가주장의사에서 파송교회인 한국 광명교회(담임 최남수 목사) 교회장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국환송예배는 광명교회 선교담당 김성웅 목사의 사화로 시작돼 김성일 목사(KAPC LA 노회장)기도, 이상용 장로(광명교회 당회서기) 성경봉독 후 최남수 목사(광명교회 담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 성육신'(빌2:6-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약력 소개는 김호동 목사(GMS 선교총무), 조사 민우석 목사(한맥선교회 대표), 축도 안명환 목사가 맡았다. 고 서진원선교사는 한국 광명교

회 파송선교사로 1999년부터 멕시코에서 선교를 시작, Iglesia De Amor, Iglesia Vida Nueva를 개척하고 크리스천스쿨 Escuela De Amor를 설립해 어린이 교육에 힘써왔다. 또한 마약중독자 재활원을 통해 그늘 속에 있는 멕시코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위해 혼신을 다했다. 유족으로는 사모 서정순 선교사와 결혼한 두 아들 호석, 호준이 있다.

(이성자 기자)

'오직 여호와께 찬양' 주제로

갯스비전교회 설립13주년기념 연합찬양집회

연합이 어려운 현대에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연합찬양집회를 개최해 작은 교회 차세대 사역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갯스비전교회(담임 임금빈 목사)는 설립 13주년을 기념 청소년 및 청년 연합찬양집회를 지난 25일 오후6시30분에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갯스비전교회를 비롯 소리엘교회(담임 박두현 목사), 사랑나무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사우스베이사랑의교회(담임 고동화 목사)의 차세대 청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했으며 엘리엇박전도사(소리엘교회)가 "Love & Praise"(시10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임금빈 목사는 "이번 집회는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마련

했다. 작은 교회가 연합해 찬양함으로 열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인 4개 교회는 8월 초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마운틴하이어에서 갖게 된다. 이번 연합집회는 비록 인원수는 중대형교회의 중고등부 및 대학청년부 모임 규모로 열렸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처럼 한자리에 모여 하나가 돼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점에서 작은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준호 기자)



갯스비전교회에서 열린 4개교회 연합 찬양예배가 마친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업)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 (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자체보와 문서전고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교계는 '협동조합 설립' 붐

"도시-농촌교회 상생,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협동조합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나눔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세우는 자립·자활적 사업이기 때문에 시혜적 성격이 강한 기존의 사회복지 사업과 구분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는 등 설립절차가 간편해졌다.

경기도 고양 거북한빛광성교회(정성진 목사)는 농어촌 지역교회와 손잡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조합에 가입한 교인과 지역주민은 거북한빛광성교회와 지역교회를 통해 농어촌의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다. 교회가 설립할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가칭)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섬길 계획이다.

교회는 이날 중 10여명의 품목선

정위원회와 구성, 협동조합을 통해 거래할 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농어촌교회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새터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에 기여할 수 있거나, 남북한 및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 가운데 통일 선교와 관련 있는 상품 등이다.

교회 관계자는 "교회가 세우는 협동조합은 이익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공동체 정신에 적합하다"며 "우리 협동조합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윤리적 소비운동과 함께 생태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정착시키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지원 기독NGO인 '지구촌 사랑나눔'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이주민 중심의 협동조합인 '지구촌협동조합'을 만들었다. 4000여만원의 출자금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

자인 조합원 100여명으로부터 모았다.

지구촌협동조합은 첫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 화장실을 만들었다. 언뜻 보기엔 협동조합에서 왜 화장실을 짓는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장 상황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구로역 일대에는 새벽마다 인력시장이 형성된다. 수백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시장을 찾지만 공중화장실이 없는데다 시간이 일러서 인근 건물 화장실도 사용하기 힘들다. 배변문제로 곤란을 겪던 노동자들이 뒷골목에 '실례'를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과 다툼이 종종 발생했다.

지구촌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불편을 줄이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달 25일 남구로역 인근에

화장실을 건축, 24시간 개방했다. 지구촌협동조합은 이밖에 무국적자로 태어나 보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미등록) 체류자 자녀를 위한 '지구촌 어린이마음' 사업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지구촌 직업소개소'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노동상담소와 급식소,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병원) 개설 등은 지구촌협동조합이 미래에 추진할 사업들이다.

김 목사는 "협동조합은 약자들이 연대해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을 통해 국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눔과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 향린교회(조현정 목사)도 지난 22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길목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향린교회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은 창립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이며, 길목협동조합은 사회선교센터가 진행하는 교육사업과 평화기행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요체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회장 나세웅·목사 부총회장 이종복 목사

예성 제92회 총회 '주의 뜻을 이루는 성결공동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제92회 총회가 27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총회에는 대의원과 예성 총회 관계자, 교단 소속 목회자·성도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후보들이 지난달 중순 단일화에 합의한 예성 총회는 이날 선거 없이 총회장을 비롯한 각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92회기 예성 총회는 총회장 나세웅 목사(신림동중앙교회), 목사부총회장 이종복 목사(창신교회), 장로부총회장 이철구 장로(강서교회), 서기 문정민 목사(동산교회), 회계 이창수 장로(시흥중앙교회) 등 신임 임원단이 이끌어간다.

개회 예배에는 박헌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과 한기동 대한기독교사렛성결교회(나성) 총회감동 등이 축사해 한국의 3대 성결교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김두성 직전 총회장은 '주의 뜻을 이루는 성결공동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전 총회장은 설교에서 "안디옥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한 토의와 원만한 합의, 결정사항에 대한 분명한 뒤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예루살렘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며 "인간은 누구든 능동자가 아니므로 여러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

아 의견을 조율하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 예성과 성결교회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기성과 나성의 지도자가 각각 축사했다. 박헌모 기성 총회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결교단을 세우셔서 거룩과 성결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며 "성결교단이 힘을 모아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 발전과 부흥을 선도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기동 나성 총회감동은 "선배들의 순교의 정신을 다시금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희망의 빛이 되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황수원 예장 대신 총회장과 박위근 한교연 대표회장도 총회장을 찾아 축사를 했다. 예배는 90회 총회장인 석광근 목사가 집례한 성찬식과 함께 마무리됐다. 예배에 이은 '두배 부흥 전도대회' 시상식에서는 복된교회가 대상을, 장영희 사모가 개인상의 영광을 안았다.

예성 총회는 첫날부터 본격적인 회무처리에 돌입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늦은 시각까지 현장개정안 벽두처리에 이어 신임 임원단을 선출했고, 91회기 경과보고를 비롯해 각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예장합동 총회 정상화 위한 비대위

8개월 만에 활동중단 선언

예장 합동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된 지 8개월 만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제98회 총회 전까지 총회장·총무 측과 총회 개혁세력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대위 서창수 위원장은 26일 "총회장이 97회 총회 파회 이후 혼란에 대해 교단의 책임자로서 가슴 아파하며 다음 달 3일 개최되는 목사장로기도회의 개회예배 설교를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비대위는 총회장의 이 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비대위 자문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분들이 책임을 벗고 목회에 전념하도록 활동을 중단

하고 추후 해산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비대위는 목사장로기도회가 진정한 화합을 위해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기도회가 총회의 진정한 화합이 되도록 그동안 남부름 미뤄온 노회 상회비 및 세례교인 현금 등을 조속히 납부하고 기타 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대위는 총회장의 노래주점 출입의혹과 일방적 총회 파회 선언, 총무의 용역동원과 가스총 사용 등에 반발하며 지난해 9월 97회 총회가 열린 대구 성명교회에서 조직됐던 '비대위'를 대구로 이동하고 총회 속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사상 박종화 목사는 격려의 말씀에서 "어제 독일 상원의장을 만났는데 '국민일보가 독일시리즈를 집중 보도하면서 독일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면서 "세계 유일의 일간기독신문인 국민일보가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6회 기독교문화대상

음악부문 박재훈 목사 수상식

제26회 기독교문화대상 음악부문 박재훈 목사의 수상식이 지난 23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개최됐다. 문성모 총장이 집필한 '작곡가 박재훈 목사 이야기'의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 이번 시상식은 기독교문화예술원 원장 안준배 목사의 사회로 총재 김용완 목사가 시상했다.

음악부문 수상자 박재훈 목사는 '산골짜기의 다람쥐', '숨이쉬고 눈꽃송이', '엄마 엄마 이리와 요것 보셔요', '어머님 은혜' 등 한국동요와 '눈을 들어 하늘 보라(256장)', '산마다 불이 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 찬송가를 다수 작곡하고 1971년 오페라 '에스터'(1972년 초연), 1999년 오페라 '류관순'(2000년 초연) 그리고 2011년도 '손양원'(2012년 초연)을 제작해 하나님 말씀과 사랑을 음악으로 완성하고 확장시켰다. 특히 오페라 '손양원'은 작품성과 예술성이 인정돼 2013년 제4회 한국 오페라페스티벌에 선정됐고 오는 5월 31일에서 6월 2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오페라 '손양원'의 공연을 앞두고 귀국한 박재훈 목사는 한국교회음

악의 방향에 대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앙고백으로서의 찬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국교회가 주도한 3·1운동을 극화한 오페라 '3·1운동'의 작가, 작곡가를 1억 원에 현상 공모할 것을 제안하며 100만원을 내놓았다.

8개 맞춤형 전략 따라 성도 미혹한다

신 천 지

신천지에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미리 짜놓은 8개 전략에 따라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대체전국연합이 26일 발표한 '8단계 섭외전략'에 따르면 신천지 추수꾼(전도자)은 '정보수집→섭외활동→예배선별→인간적 신뢰 형성→유형별 상대 진단→신앙우위 선점→유형별 맞춤형 전략→복음방 등록' 순서에 따라 성도들을 포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수꾼은 성도들의 정보를 보통 신천지에 빠진 대상자의 가족, 친척, 교우, 친구, 지인을 통해 모은다. 추수꾼들은 기도제목, 최근 관심사, 고민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내용을 엿듣기도 한다.

섭외활동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포교 대상자와 친분을 맺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성격·행동 유형검사, 미술심리치료, 도형그리기, 우울증·스트레스 테스트, 애니그그램, MBTI 검사 등을 활용하는데, 최근엔 힐링 스킨 수강,

영국 뮤지컬 영화 관람 등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섭외활동에 들어간 추수꾼은 포교 대상자를 나이, 경력력, 성품, 건강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예배선별)하며, 선별 대상자를 상대로 곧바로 인간적 신뢰 형성에 들어간다. 추수꾼들은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 자녀, 직장, 이성, 건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가짜 독서 지도사, 심리상담사, 건강전문가 등을 연결시켜주며 호감을 산다.

이어 추수꾼은 개인 간증, 중보기도, 말씀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신앙우위를 선점하는데 이것은 포섭 대상자에게 영적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들어있다. 이때 신천지가 자주 써먹는 방법은 꿈 이야기다. 추수꾼들은 치밀하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썩은 나무를 불태우고 울더라.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등 거짓 꿈 이야기로 신앙우위를 선점한다.

그 다음엔 추수꾼이 관리자, 교사 등 3-7명이 한 팀이 되어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짠다. 이들은 선교

사, 목사, 사모, 지나가는 행인, 예술인 등 가짜 콘셉트로 연기를 하며, 추수꾼이 우연을 가장해 복음방 교육을 인도할 제3의 인물을 연결시킨다. 제3자는 보통 사모나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선교사 콘셉트를 써먹는다. 추수꾼은 "이분을 통해 우리 가족, 구원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는데 영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치켜세운 뒤 큐티모임, 기도모임, 성경공부에 연결시킨다.

이렇게 복음방 교육으로 끌어들이고 신영공부를 진행할 때 성경구절(잠12:23, 마13:44, 마7:5)을 제시하며 가족, 교우, 목회자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입막음을 시킨다. 포교 대상자가 신천지를 의심할 땐 오히려 "우린 신천지가 절대 아니다" "교육 내용 중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며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춘다.

신천지대체전국연합 관계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면, 교회 밖 성경공부를 연결시킨 뒤 입막음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했다면 100% 신천지 추수꾼"이라며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 때문에 영적 전시상황에 놓여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cafenaver.com/sosjci).

제2회 '국민 미션어워드' 시상식

국민일보가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 창달에 공헌한 개인·기업·기관·단체·교회에 수여하는 '제2회 국민 미션어워드' 시상식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올해의 목회자' 등 27개 부문의 수상자들과 가족 지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김성기 국민일보 사장은 인사말씀에서 "세상이 밝고 깨끗해지려면 기독교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오늘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독교 문화 확산의 선두주자이며, 이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 심사를 맡았던 크로스웨이 이성경연구원 원장 박종구 목사는 "심사의 기준은 기독교문화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진실성이 있느냐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윤리성 신뢰성 등 부문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이 땅에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 데 있어 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의 목회자'로 선정된 윤호균 화강교회 목사와 '올해의 크리스천'으로 선정된 박병선 안수집사, 사회봉사 부문의 장현순 과천시 마곡교회 목사, 건강식품 부문의 박효석 한독화장품 회장 등 27명의 수상자들이 차례로 상패를 받았다.

시상자로 나선 국민문화재단 이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모나리자 스킨케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파셜 기계도입)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50	\$40	10회 \$400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40	\$35	10회 \$350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200	\$150	10회 \$1500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250	\$200	10회 \$2000	\$1800	1회 FREE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위그노 신앙 답사기(3)

한평우 목사
(로마천인교회)

헝스(Reims)

이곳은 왕들의 대관식이 헝스 대성당에서 열렸던 곳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도 잉글랜드의 위세에 놀려 대관식을 갖지 못하였던 샤를 7세에게 용기를 주어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할 뿐 아니라 잔 다르크 역시 참석하였다(1431년). 그 후 오를레앙에서 잉글랜드 군대를 물리친 여장부로 프랑스에게 비로소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그것도 겨우 열아홉 살에 말이다. 우리나라의 유관순 누나처럼.

그녀는 조국을 구한 후 현상금을 노린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잉글랜드인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마녀로 판결하여 화형을 시켰다. 그러나 그 후 25년 만에 로마가톨릭교회는 무죄를 선언하고 후에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 마침 잔 다르크의 탄생 582주년 기념으로 성당에는 온통 잔 다르크 형상과 그림으로 가득했다. 심지어는 제대 뒷면에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상을 그려 넣는데 이곳은 잔 다르크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를 신으로 섬기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의 변덕은 이리도 갈피를 못 잡는다. 언제는 마녀라고 했다가 시간이 가니 그를 섬기는 대상으로 높이니 말이다. 그저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애국자 정도로 존경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다. 고딕 건물로 지은 성당 한편의 길다란 유리창은 사갈의 풍란적인 그림을 스테인글라스에 담고 있다. 이 그림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현대인은 유명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알아차린 약삭빠른 비즈니스는 그것을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있지만 인간은 모름지기 주님만 높여야 되지 않다.

어느 그림은 왕이 왕관을 벗고 잔 다르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있다. 마치도 잔 다르크로부터 왕의 임명권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오를레앙

이곳에는 칼뱅과 위그노 유적들이 있는 곳이다. 위그노 역사를 연구하는 안내하시는 목사님은 이런 곳에 생소한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화려한 파리를 마다하고 이런 생소한 도시, 그리고 알려지지 않으면 관심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건축물을 가리키며 "이 집이 칼뱅이 살았던 집입니다" 혹은 "이 집에서 위그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라는 설명은 다시 한 번 그 건물을 바라보고 사진도 찍어대는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칼뱅은 우리나라 조선조 중종(1506-1544)때 인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칼뱅이 대학을 다니며 거주했던 집이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건축 양식의 차이로 인한 내부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변형되지 않은 현장을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좀 더 후손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부수고 새로 짓고 꾸미는 행동은 얼마나 안타



이곳 곡물 창고에서 예배드리다가 학살당함. 후손들이 복구해 놓음

까운 일인가 싶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인 진실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터키의 일곱 교회의 꾸밈없는 하물어진 모습, 그것은 속살을 보이는 것처럼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에서 훨씬 더 질박하고 단순함의 매력을 터득하게 된다. 화장으로 아름답게 꾸민 모습보다는 민박의 청순함이 더 매력적이라고나 할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꾸밈으로 유적지를 변형시키는 우를 범한다.

당시 있었던 저자거리의 없어졌고 칼뱅이 복음을 전했다는 자리는 이제 광장이 되었다. 복음의 절대적 진리가 세월과 함께 상대적 진리로 폄하되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리기만 하다.

부르주

이 도시는 지금도 아주 고급스럽다. 이 도시에서부터 부르주아(Bourgeoisie, 중산층, 마르크스 이후 현대는 자본가 계급을 말함)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된 성

내에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계급의 사람들은 위험하고 적박한 성 밖에서 살아야 했으므로 생겨진 명칭이었다고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에의 욕구가 있기에 집을 지은 뒤 담을 높이 둘러쌓는다. 그러나 높이 둘러싸인 성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부자의 특권이자 자량의 요소였다. 고로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서민들이나 또는 성안에 살다가 망하여 밖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이곳에는 칼뱅이 다녔던 학교(법학 전공 학위를 받음)와 1529년의 회심(신학을 병행함),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던 장소 등이 남아있었다. 또한 장터에서 칼뱅의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3-40cm 정도 되는 돌이 기념으로 보관되어 있어서 거기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길거리에 있는 의미 없는 돌 하나도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된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번에 어느 목사는 유럽 교회의 힘든 목회상황을 말해준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열악한 유럽 목회도 점점 부익부빈익빈으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특정한 교회로는 몰려가고 대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현상 말이다. 그래서 잘되는 곳은 자랑하고 힘든 교회는 어두운 표정으로 묵묵부답이고...

이 시대 교회도 부르주아가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있다. 그것은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도 본인들은 큰 고통가운데 허덕이게 된다. 주님만이 우리를 참찬내지는 책망하실 텐데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음으로 수나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목회자들이다. 이런 부분을 언제나 초월하게 될지 난감하다.

아랍 군대가 엘리아 선지자가 거하는 성읍을 군사와 말과 병거로 포위하자 절망했다. 엘리아의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사실을 보고 선생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아는 두려워말라고 하면서 종의 눈이 열려 지기를 기도했다. 눈이 열린 종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랍 군대의 수보다 많은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아를 둘러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목회자 말이다. 그런 목회자는 현실의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적 가난에 주눅 들지 않게 된다. 또한 교만하지도 않게 되고...

(계속)

선교 편지 미얀마

신학교 사역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강력한 영성훈련으로 사색기도는 물론, 매주 수요일 금식, 토요일 노방전도 사역을 통해 미얀마의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비전을 갖게 하며 순교적 목회사역을 위한 학문과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매 주일날 오전 7시 신학교에서 예배드리 후 각자 개척한 교회로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들이므로 교회로 파송할 때에는 빵 튀기(쌀, 옥수수 등)를 제공합니다(과거에는 빵과 계란을 제공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신자들이나 가난하고 마음이 순박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종이 변하여 사역자가 된 2명의 전도사가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팀들이 와서 신학생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면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황금어장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양육하여 미전도 종족이 많은 미얀마뿐 아니라 인도차이나 5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할 목적으로 현재 신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외벽은 완성되었으나 인테리어가 미완성이므로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개혁(교회지어주기)사역
미얀마는 4백만 개의 절이 있으며 미전도 종족이 많아 무교회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생들이 전도하여 100여명의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를 지어줍니다. 현재 전국에 178개의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대나 무교회 4,500달러, 벽돌교회 11,000달러). 오랜 동안 교회를 건축해 온 불교신자였던 '미야웅'이전 건축업자가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원주민 사역자 영성훈련(세미나)
미얀마 사역자들은 정식 신학교를 나와서 사역을 하는 목사들보다 세미나 3개월 또는 6개월 수료하고 은혜로 사역하는 사

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3, 4차례씩 원주민 사역자 영성훈련/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찌나'란 곳에서 영성훈련을 개최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Brang Aung이란 청년(33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더욱 원주민사역자들이 영성훈련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29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눈을 뜬 Brang Aung과 삼촌 David Luim목사가 신학교에서 눈물겨운 간증을 할 때 마침 캐나다 우리장로교회 강 목사 내외와 박 장로 내외가 교회 헌당식을 위해 왔다가 간증을 듣게 되었고 간증을 들은 신학생들도 많은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사역자 영성훈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불같은 성령의 바람은 '미찌나'로부터 시작되어 온 미얀마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5개국에 불같이 여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아사역(입양 아이당 50달러)
미얀마는 내란과 사이클론으로 생긴 고아들이 많습니다. 현재 세 곳 고아원(207명)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일곱 고아원에는 쌀값만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고아원을 한 곳에 모아 교육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녀치지 못한 자들이나 주님의 크신 은혜로 고아들이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고 있어 비전을 넣어주며 나라의 희망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신학생들의 영성과 재정후원을 위하여(\$100/월)
2. 신학교 건축: 인테리어를 위하여
3. 미전도 종족 개척사역을 위하여
4. 무교회 지역에 계속 교회가 개척되도록
5. 원주민사역자 영성훈련(세미나)을 위한 재정을 위하여
6. 고아들의 건강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로 높아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인관일/우자 선교사 이메일 theheartofasi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www.thankingchurch.org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감사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ingchurch.org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Tel: (213)413-1600, (F) (213)383-2604 3119 West, 8th L.A., CA 90020 Tel: (213)383-2600, www.laopend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www.scrdm.org Tel: (213)213-703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k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Tel: (323)468-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통)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 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www.mijoopeac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벤티쿠버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Tel: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브라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Tel: (626)2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김영민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CH), 사역: (818)98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Tel: (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org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www.cpc.org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09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torrancecpc.org Tel: 310-370-2009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세계 종교문화 뉴스 : 낙태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미국의 낙태죄 재판: 낙태죄에 대한 찬반론 문제

지난달 말 미국의 한 법정에서는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검사관은 애완용 동물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낙태합법화 반대론자들은 언론이 이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72세 미국 의사 커미트 고스넬(Kermit Gosnell)은 필라델피아 서부 도심에서 낙태시술(배심원들은 이를 "비열한 낙태시술"이라 설명함)로 7명의 태아와 임신부 1명을 죽였다는 혐의로 살인죄 재판을 받고 있다.

필라델피아 수석검사관 샘 굴리노(Sam Gulino)는 2009년 및 2010년 시내 산부인과에서 수거한 동물컨테이너에서 발견된 태아 주검을 조사한 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런 병동시체를 봤고, 조사를 위해 그 시신들을 모두 녹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언론이 이 재판과 그 증언을 보도하지 않자, 낙태반대론자들은 언론이 낙태합법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옹호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판은 온라인에서도 날리 퍼졌고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 비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지의 한 블로거에서는 그 재판의 내용은 지나치게 외설적이고 낙태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회회화충이거나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은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이므로 언론에 실을 수 없었다는 변명이 실렸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낙태 합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고스넬의 살인죄 재판으로 이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고스넬은 낙태 후에도 살아있었던 태아의 척수를 잘라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관에 따르면 태아의 사체 7구 중 3구는 모태 밖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고스넬은 낙태죄 8건 및 이와 관련된 16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고스넬은 물론 그와 관련된 9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낙태과정론 및 부정론의 윤리적 근거 윤리적으로도 과연 낙태가 도덕적이나 비도덕적이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때문에 찬반론이 갈리는 상황이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페미니즘 운동, 산모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한다. 반면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생명체이므로 낙태는 살인죄로서 불법임을 강조한다. 낙태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200년 전부터 전문적인 낙태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의사들 역시 낙태 시술이 모체에 끼치는 위험성 및 치명적인 후유증, 그로 인해 새로 태어날 태아에게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낙태 기술의 확산을 꺼렸다.

한편 자신은 무슨 일을 해도 선하고 남들은 악하다는, 마치 유아론(唯我論, solipsism)과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 편의에 따라 낙태

합법화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낙태불법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논리적 근거는 매우 약하다. 나 자신만 선하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는 원리다. 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알파든지 무조건 자기도 옳다는 유아론적 입장을 취할 수 있으므로 이런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본능적으로 유아론적 생활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타인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없다. 아무 새로운 내용도 없는 자신의 수박 겉핥기식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다.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다. 나는 내가 원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낙태를 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낙태의 자유를 불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반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다.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낙태는 살인과 같다."



심계명과 세상의 형법 모두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 개신교의 낙태불법화 입장에서는, 심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고 낙태도 살인인므로 당연히 낙태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각 종교의 낙태에 관한 입장 천주교 및 동방정교, 이슬람교에서는 태아 역시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개신교에서도 보수파 및 주류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여기지만 전반적으로 그 입장이 통일되지는 않았다.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입장에서도 도덕적으로는 낙태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개신교에서 낙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스스로 어떤 입장을 택해야 할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성경에는 낙태에 관한 언급이 없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블로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낙태는 대체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사회 최하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거의 몰래 낙태를 하므로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도 이를 조용히 숨기고 지내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신 또는 그 부모의 권유에 따라 낙태를 선택하거나 남자 측에서 낙태를 강요하는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절제와

여성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전혀 그와 같은 도덕적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신은 낙태의 자유를 선택했고, 어차피 합법적인 낙태를 자기가 했으므로 창피할 것도 없고 죄지는 것도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태아가 생명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낙태를 한 자신은 살인자가 된다. 따라서 낙태 찬성론에서는 태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라는 주장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법과 윤리의 관계: 법은 최소한의 도덕? 일반적으로 보면, 양심에 따라 누가 보건 안보건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의 원칙이다. 반면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여서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되니까 남들 몰래 악한 행동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들의 심리를 보면, 그들은 악행을 들리면 자기는 악한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 자기는 선하다는 어리석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리의식이 낮은 범죄자들이나 선천적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자들은 자기 양심보다는 주변사람들, 가령 가족 및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거나, 돈을 사취하려는 기대심리가 더 많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고자 자신의 악한 행동을 숨기려 한다. 그저 매 순간 남들에게 잘 보이거나 돈을 사취하여 즐기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인 경우도 있다. 나쁜 일이나 남들의 비난을 살 행동도 해도 들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어린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부모나 성인들은 어린이들의 그런 심리를 다 꿰뚫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그 아이는 장래 비양심적인 성인 또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법률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이를 착수한 때부터 범죄가 성립한다. 남들이 그 행동을 몰랐다고 해도 범죄자의 범행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 선진국들 및 한국의 형법에서는 범죄는 물론이고 미수범, 교사범, 중범을 처벌하고 있다. 미수범이란 범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교사범이란 남몰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중범이란 자신이 타인의 범죄를 명백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모두 그가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다. 그 사상적 기원은 신약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후 책임을 안 지려고 그 것이 실수였다고 핑계를 대는 자들도 있다. 실수라고 해도 일부 범죄는 이를 과실범이라 하여 처벌한다.

신은 그 정의상 전지전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신적 발달장애가 있거나(형사정책-刑事政策-론에서는 선천적으로 교활하거나 악한 범죄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넓게 보면 그런 자들도 정신적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세요? "선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자주 성경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침노? 빼앗는 것?' 좀 이상했지만,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마7:7) 하셔서, '응! 추구하라고, 북돋아주시는구나!' 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는 손자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성경에 네 번 나오는 "통달"이란 말을 좋아해서 오대양 육대주를 통달하라는 뜻으로, '달양'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우습죠? 그 애가 초등학교에 가서 "달양달양" 하도 놀림을 당하니, 결국 이름을 바꾸었어요. ㅎㅎ

하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 응급으로 병원을 찾아가는 길인데... 급식사역을 위해 한창 바쁠 때 연락을 받고 니키(Niki)를 픽업해 황급히 가는 중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그녀가 진짜 괴물이 삼겹찬 채 울먹이며 입을 뿜는다.

"죽는 게, 무서워..." "찰칵 찰칵!" 차창에 와이퍼가 빗물을 밀어내면서 시계처럼 분주히 움직입니다. "엄마는 내가 6살 때 아빠와 이혼하고 늘 내 동생과 비교하면서 날 죽으라고 했어." 어

제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중국인 남편 라이와의 결혼 9년 만에 얻은 아들의 유아세례식에 왔지요.

우리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반전이 많고 또 반전의 반전이 있더군요. 그중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시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시는... 반전이이지요?

우리 거리의 노숙자들은 새 삶을 살기 참 어려워요. 현실이... 상황이... 그래서 저희 선교의 골(goal)은 오늘 죽더라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로'처럼 구원받거나, 또는 육에 갇혔다가 바울을 만나 헌신자가 된 '오네시모'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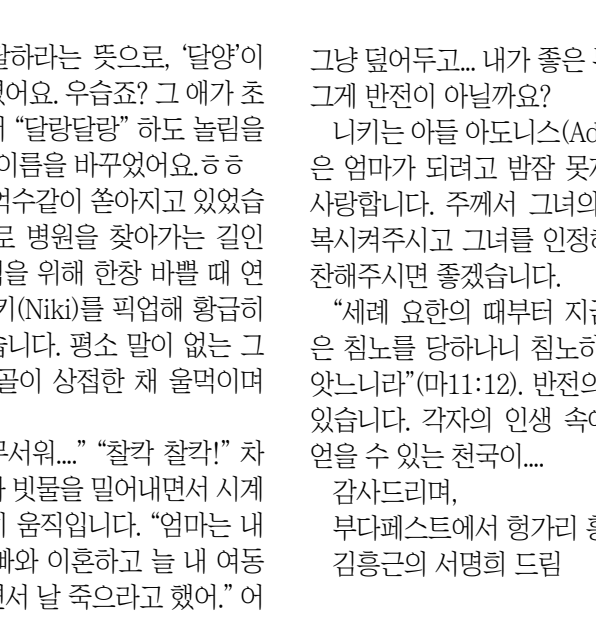
부 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 용서?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하십니다.

그냥 덮어두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그게 반전이 아닐까요?

니키는 아들 아도니스(Adonisz)의 좋은 엄마가 되려고 밤잠 못자고 돌보며 사랑합니다. 주께서 그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녀를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반전의 반전이 또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 침노해야 얻을 수 있는 천국이...

감사드립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의 서명회 드림



발달장애자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 몰래 나쁜 일을 하면 창피하지 않을 것이고 벌도 받지 않으므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양심과 윤리도덕이 아니라 법적 처벌과 타인의 시선이다.

결론 현재 미국은 각 주마다 그 정도가 다르지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973년까지 미국은 대체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가 많았다. 그러나 로 v. 웨이드 사건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당시 텍사스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낙태합법화와 불법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고스넬 사건은 고스넬이 낙

태의 목적 뿐 아니라 그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해할 의도로 위험한 약물 등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낙태가 합법이 되면 불법이 되긴, 실제로 현실에서 낙태는 대체로 최하층 사람이나 정신적 발달수준이 매우 낮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택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낙태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낙태할 일이 거의 없는 상위층 사람들로서, 그들은 순전히 자유주의의 이론적 원칙에 따라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몰래 낙태를 해서 사실상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합법, 불법을 논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최근 고스넬 재판에 대해서도 미국의 언론은 아마 이런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스펙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대, 스펙을 넘어 스토리 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스토리의 강력하고 신비한 매력! 이 책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지 영적 원리와 해법을 알 수 있다.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목회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위대한 스토리의 세계! 비천한 노예와 강간 미수범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애굽 총리에 오른 요셉의 생애에 은닉된 스토리의 베일이 벗겨진다.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도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소강석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페어디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성소원 352면 / 12,000원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십자가를 체험하라 320면 / 12,000원



생명의 나무 503면 / 16,000원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5)

5.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교회 목회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갖는 성격들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갖는 그 다섯 번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의 다섯 번째 성격은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 (Conservative-Evangelical Christian Education)"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말해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교육이 개별 교회들의 교단색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보수적이며 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사실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의 신학과 신앙 자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성향을 띠어왔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맨 처음 한국 땅에 복음을 들

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보수적 복음적 교육이 가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강점이자 특징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중심적 교육(Biblical/Bible-Centered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중심이라는 진리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육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 교육의 내용, 규범, 방향성, 방법론들을 마련하고 모범적으로 실행해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진정 성경적으로 견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보수적 복음적 기독교교육의 또 다른 강점이자 특징이 되는 것은 "제자도를 강조하는 교육(Discipleship Education)"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한인교회의 보수적 복음적

의적(Evangelicalist)인 것으로, 성경적(Biblical)이고 성경중심적(Bible-Centered)인 것이 아니라 성경주의적(Biblicistic)이고 성경우상주의적(Bible-Idolized)인 것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Making disciples of Christ)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는(Making disciples of one's own) 행태들로 왜곡되어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한다면서 획일화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의 모습으로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수적이라는 본질이 가지는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에 대한 공고한 유지 및 수호(동시에 온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라는 가치는 온데 간데 없이, 오히려 피교육자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성경 중심적이며 제자도 강조하는 교육 시행해야 본질 잘 견지 수행... 변질 왜곡 모습 없는지 점검

고 온 미국 선교사님들의 신학과 신앙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며 또한 복음적이었던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보수적 복음적 성향은 그대로 한국교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보수적 복음적 경향을 띠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향은 한인 이민교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으로 보수적 복음적 신앙과 신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발전된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신학과 신앙을 토대로, 우리 한인교회들은 그 교육사역 또한 일구어왔으며, 그것은 점차 우리 한인 교회교육을 성격 짓는 한 축이 되어왔습니다.

이렇듯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이 신앙적으로 또한 부정적으로 보수적이며 또한 복음적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한인교회들이 가지는 매우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마땅히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지향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은 실제로 우리 한인들에게 건전하고 탄탄한 신앙과 영성을 형성시키고 성숙시키며, 또한 그 공고한 신앙생활의 규범들을 내면화시켜 주는데 막대한 공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한 교회교육의 현상에

교육의 모습은 받은 복음을 혼자서 누리려고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제자로 삼는 일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살핀 바 우리 한인교회(한국교회도 공히)가 가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심과 열정 또한 이러한 교육과 밀접상당한 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한인 교회의 보수적 복음적 기독교교육은, 그러나 그 본질이 적용되고 실행되는 실제적 교육의 과정에서 그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수 복음적 교육이 진행될 때 그 본질은 긍정적이거나 그 현상이 부정적인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보수적" "복음적"이라는 단어들에 갖는 본유의 긍정적 의미들조차도 퇴색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온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의 교육이 본질적으로 보수적(Conservative)이며 또한 그것을 지향하지만 때때로는 보수주의적(Conservatism)인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적(Evangelical/Evangelistic)인 것이 아니라 복음주

장을 저해하고 인격을 억압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자체를 등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역자들은 우리의 교육사역에 있어서 보수적 복음적 성격을, 그 진정한 본질을, 잘 견지하여 수행해야 하는 한편, 우리의 교육 안에 그 본질에 대한 변질과 왜곡의 모습들은 없는지 경계하고 혹 있다면 어떠한 부분들 인지를 잘 점검하고 살피며 어떻게 이들을 극복해 나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육의 본질은- 그리고 그 본질에 입각하여 제대로 수행되는 교육활동은- 매우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것이지만 불구하고 그 교육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실천되는 것으로 인해 그 본질마저 미미가 퇴색되고 그 본질자체가 외면당하고 급기야 폐기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일단 우리 한인교회가 "보수적-복음적 기독교 교육"이라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이는 그 본질상 우리 한인교회가 지향하는 그리고 마땅히 지향하기에 가치있는 부분임을 피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그 자세한 논의는 다음 이야기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성도의 담력(신31:1-13)

그리스도인의 담력이 믿음생활에 절대 필요한 이유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담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고 믿어야 합니다(6,8). 눈에 보이는 모세,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바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신 유일

한 지도자입니다(마28:20). 둘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야 합니다(9-13).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하나님은 율법을 그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려면 성경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6). 모든 것의 중심인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이 담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화 예방신앙(신31:14-30) 찬342장

자동차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방어운전을 하듯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예방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 마음임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배도를 아시고 세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의 결과로서 환난과 재앙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17).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18). 다른 하나는 노래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21). 타락에서 회복하

는 그루터기로서 언약의 노래를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보곤, 전수하게 하셨습니다(24-27).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준비해둔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있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장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장합시다.

수 모세의 노래(신32:1-52) 찬91장

신명기 32장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구원의 말씀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갈대아 우르, 애굽에서 하나님이 친히 품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11-12). 17절에 그 새끼위에 '너풀거리고(메라헤펠 hovering)'란 말은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창1:2 운행하심)를 가리킵니다. 둘째,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위해

주님이 부단히 일하셨습니다. 의로운 백성, 여수론으로 불렸으나(15)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차는 타락한 백성이 될 것을 예견하시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습니다(46). 이 구원의 노래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목 모세의 축복(신33:1-29) 찬410장

모세의 유언같은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교회의 초석인 12지파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과 관련된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중 레위 지파의 책임이 중대함을 돌보입니다(8-11). 그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고 온전한 제사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여수론(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성전 개념은 신약의 가르침과 똑 같습니다.(고전3:16). 참 모세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엡1: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질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금 겸손할 이유(왕상1:1-10) 찬347장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배웁니다(5).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첫째, 인생은 겸손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흠에서 나와 흠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별세할 때가 되자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는 겸손상태가 된 것처럼 인생은 밀전 없는 존재입니다. 둘째,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마음은 아담이 받은 유혹

과 같은 것이고 바벨탑을 시작한 니므롯의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일지라도 교만이 싹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셋째, 영안이 열려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 모양만 가지고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때 성령의 빛이 임하여 진리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살아갑시다.

토 성령의 지혜를 구하자(왕상1:11-27) 찬181장

불발로 끝난 쿠데타가 만든 난관을 나단과 밋세바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랐습니다(13). 다윗의 고문 선지자로 일한 나단은 사람의 뜻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영이 열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만 아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약4:15)고 고백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새마나 기도를 따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솟아나는 열매입니다. 밋세바는 약속을 따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의 신실한 약속을 겸손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난관을 타개합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흥동 1670-1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중앙로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중랑구 한우동 340-(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로마관) VIA DEI QUINTILI 9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8,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전야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31)275-9191, Fax: (031)275-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17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2-888-49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6-4(1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7)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소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842-3181~3,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제1 2층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강원도 양양시 양양읍 통정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9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6-4(104-27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중랑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4:00 주일오후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주안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신길 1동 448-20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RAI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저녁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1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저녁 9:00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6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2,3,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irk@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은혜의 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4)



유경옥 전도사
(화가, 수목미술선교회 회장)

B. 골란 고원과 갈릴리 호수 주변

B-1. 가이사라 빌립보 (Caesarea-Philippi)와 Banias

골란고원과 갈릴리 호수주변은 특별히 번호를 붙이기 곤란할 정도로 서로 연결돼 있지만 일정표대로 글을 써 나가는 원칙에 따라 구별기로 한다. 그러나 중복될 수 있으며 일정에 없었던 요단강에 대한 부연에 양해 바란다. [필자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던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옛날이 아닌 오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란 명제에 따른 각자의 신앙고백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닐까.

우리는 모래 언덕보다 낮은 도로를 달리다 말고 해발 '0 level' 지점도 보고 광야에서 내려 전형적인 로렘 나무들이 모래 언덕위에 자라있는 것을 보았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 숨어들어 지친 몸을 채 못 가누고 죽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던 로렘나무. 보통 생각에는 몸통이 있고 가지가 위에 있으며 잔가지에 나뭇잎이 무성하여 그 그늘에서 쉰 것 같지만 로렘나무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관목이며 가는 줄기가 땅에서 직접 나와 잔잎과 함께 전체적으로 둥근 무덤같이 생겨 그늘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태다. 그것도 무릎이나 허리 정도의 작은 것이 여기 저기 있었고 큰 것은 드물었다.

'로렘나무' 이름으로 꽤 많은 웰터나 크리스천 민박집, 심지어 카페도 있을 테고, '로렘나무 밑에서' 라는 기독교TV 짧은 묵상시간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지는 딱 같나무 검은 형태의 실루엣에 익숙해진 우리들로서는 신기함보다는 황당했다고나 할까. "이게 로렘 나무 맞아요?"라고 묻기 바했다.

일행은 제일 큰 로렘나무 언저리에서 사진을 찍어대기도 하고 무릎을 꿇어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뭇잎을 쓸어보기도 했다. 엘리야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위로라도 하는 양. 생각이 많은(?) 한 배두인이 전통의상으로 치장한 낙타 한 마리를 모래 옆에 끌어앉히고 사진모델을 시켜 틱을 받기도

했다. 천연 요새 역할을 하는 와디, 오아시스들과 여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멀리 보이는 모암 지방의 골란고원을 보았다.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는 동안 스프링클러로 키우는 타마라라 불리는 대추야자들이 군데군데 군집해 서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늙고 푸르렀다. 농업공동체 키브츠가 많이 있다는 뜻이다.

요단강(요르단 강 River Jordan)을 모르던 골란고원도 갈릴리 상하부도 정립이 안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달리는 버스에서 가끔씩 내려다보았다. 요단강은 시리아 서남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며 이스라엘을 지나 더 남쪽인 요르단 쪽으로 흐른다. 그 중 한 발원지가 우리가 가고 있는 헬몬산 기슭에서, 다른 것은 레바논에서 발원한다.

작은 법대로 물에 잠기는 요르(조르 Jor)는 갈대, 파피루스, 버드나무, 사시나무 숲으로 덮여있어 옛때지 및 야생동물의 은신처가 됐지만 일부 생태 보호지역을 제



로렘나무

외하고는 현대 댐 건설로 관계수로 농토로 변했다. 바나나 사탕수수 대추야자 등을 심어 수확, 수입을 올린다.

이스라엘에서의 요단강이라 함은(수12:1) 긴네렛 남단에서 사해 북쪽을 흐르는 강을 말한다. 우리 기독교 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이 강을 신성하게

여긴다. "오른쪽 저 것이 요단강입니다"라는 안내가 있을 때마다 담소를 나누던 분들까지 일제히 일어나 오른 쪽을 살피는 사이 버스는 기울고 요단강은 나무사이로 숨어 흘러만 갔다. 1967년 6월 전쟁 후 이스라엘 군이 아비스 강의 합류지점 남쪽과 요단강의 서쪽 기슭의 영토를 점령하자(골란고원의 3분지2를 차지함) 요단강은 사해까지 이어지는 휴전선을 겸하게 됐다.

바니아스(Banias, 그리스어로 파니아스)란 반(판 Pan-그리스 신화에서 목동의 신으로 나오는 반수반인 신을 섬기는데서 나온 말이라는 설과 영어의 "범 우주적, 일반적, 대형의"라는 의미의 팬을 말한다 설이 있다. 센토, 즉 켄타우로스 상반신이 반인 하반신이 반이라면 판은 뿔이 긴 염소나 산양의 상반신을 가졌다. 고대에는 바알신을 이곳에서 섬겼다고 한다.

앞서 요단강을 심도 있게 그려본 것은 그냥 지나가기만 했을 뿐이지만 현재 시리아의 이 바니아스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그 요단강 동편(Trns-Jordan)이 이른바 골란고원(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때 Eastern Mts. Golan, 혹은 Golan Heights-시리아로 봤을 때 남서쪽)이다.



이곳은 카이사라 아우구스투스가 헤로디움을 건설한 헤롯대왕에게 선사했으며 헤롯대왕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의 아들 헤롯 필립이 더욱 화려하게 다듬어서 로마황제 디베라 가이사라 기념했다하여 지명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됐다.

요단강 발원지 중 하나인 바

니아스에서 "발 담그는 행위 금지"라는 팻말을 보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신발을 벗고 뛰어들었을 것이다. 보디첼리의 작품 중 "비너스의 탄생"에 나오는 바닷물의 도식적인 파도의 표현처럼 그렇게 잔물결이 일어서 더욱 아름답고 맑게 보였다.

우리는 반원 모양으로 오목히 들어가 낮은 돌담 같은 곳에 빙 둘러 걸터앉고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주변의 상수리나무와 주엽나무 등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1973년에 있던 옴키퍼전쟁 당시 쓰였던 전차

꽃과 야생화들은 1998년도에 왔을 때보다 더욱 푸르고 곱게 반겨주었다.

우리 일행은 판(Pan)신이 숭배되고 있었던 붉은 산의 벽에 패인 천연 궁둥과 동열이 있는 곳으로 갔다. 헤롯대왕이 이곳에 흰 대리석을 끌어와 궁전을 지었다고 하며 유적으로는 십자군 시대의 성벽과 탑이 있다. 우리는 바니아스 수원지 바로 밑쪽의 바니아스 폭포에 먼저 들렀다. 그 지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위로 덮였고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하류 갈릴리 이후의 삼각주의 요단강과는 사뭇 달랐다.

요단강이 세계에서 수면이 가장 낮은 것은 지형적 문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홀라(Huleh)계곡 사이를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이스라엘, 오른쪽이 시리아, 꼭대기가 백향목 많은 레바논, 사해 남동쪽이 요르단이다. 교역과 발전을 위해 요단강에는 요단강 양안을 잇는 다리가 많이 있다. 이곳은 사과 및 감귤류와 목재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헬몬 산 근처는 사과의 명산지로서 이곳 사과는 너-무 맛있었다. 추위와 더위, 일조량 및 일교차가 심해야 잘된다는 사과농사, 당도도 높을 뿐 아니라 단단하면서도 즙이 많고 아삭아삭해 "가죽과 반드시 또 오게 해주세요"란 기도를 했

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강사 목사님께서 땅에 넣은 사과를 사주셔서 차마다 풍성하게 먹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 언덕 밑에는 포도나무 아래 장미를 심어 그 향이 포도에 베이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특산품 포도주를 만든다고 한다.

B-2. 헬몬산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들의 성산인 헬몬산(2,850m)은 한반도의 백

이후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 소유지만 군의 분할협정 사이에 경계선이 불규칙하다. 1973년엔 시리아 군이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밤 2시에 기습해 헬몬산 관측초소를 초도화했지만 잠시였고 이스라엘 군의 반격으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옴키퍼 전쟁, 아랍은 라마단 전쟁으로 부르는 그것이다. 세계사에서는 제 4차 중동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위 많은 지역의 제 7기갑 여단과 좀 평평한 지역의 188바라크 기갑여단 등이 이를 격퇴한 것이다. 낡은 센추리온 전차를 색칠해서 길가에 진열해 놓은 곳도 있다

1964년 계속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중재로 완충지대가 생겼지만 무시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휴전인 상태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버스로 가다보면 "여기는 시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키브츠도 있다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지요" 해서 보면 아랍인이 목축을 하는 장면도 눈에 띄어 정신없을 때도 있지만 이 모두가 그런 이유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이후 시리아 대통령과 이스라엘 수상과는 본인의 협상으로 어정쩡한 긴장상태지만 서로 관광객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고 있다.

하부 갈릴리(갈릴리 호수를 상하로 나눌 때 중앙 이하 왼쪽에서 호수 끝나는 부분을 말함)나 그 이하 이스라엘 땅에는 양떼가, 이곳 상부 갈릴리 지역과 골란 고원에서는 소 떼(바산의 소)가 많음을 보았다. 먹이 즉 지형에 따라 풀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산 지방의 도피성인 골란(신4:43, 수20:8)에서 유래하는 골란은 이곳 뿐 아니라 길르앗, 암만, 모암, 에돔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동편의 높고 평평한 구릉 지대 전체를 말한다. 이 지역을 암시하는 명칭은 수없이 많다. 즉 헬몬산, 바알 헬몬, 스닐(신3:8, 사3:3), 시리온(신3:8, 시29:6), 옥의 나라, 아르굽 온지방, 르바임, 하봇 야일, 신약에서는 바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 누가 복음의 3장1절에서 헤롯-빌립의 통치 등을 알 수 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사2:13, 겔27:60; 39:18) 상부 갈릴리 지역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 짐작되는 드루스 종족과 유대인 정착민이 함께 섞여 각각 현대 목축업을 발전시켜 나가며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어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속)

B-3. 골란고원(Golan Heights)

아랍어로는 자올란, 19세기 전까지 작가들에 의해 주로 "둘러쌓인 곳" 즉 "구역"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고원이라 불렀다한다. 골란고원은 따로 순례할 것이 아니라 헬몬산 밑 가이사라 빌립보의 바니아스를 가려다보니 상부갈릴리와 화산암으로 되어있는 이 일대를 지나게 된 것이다.

현재 이곳은 이스라엘 6월 전쟁



조용기 목사



베데스다 대학교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1.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미국 1기, 한국 12기) (최고 교회지도자 과정)

과정개요

- 교육대상** *기업체회장, 사장, 임원급 이상
*국회의원 및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기독교관련 종교 및 선교단체 임원급이상
*교회를 초월한 담임목사, 목회자
*교회 직분자(장로, 권사 외)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교육기간** *2013년 6월18일(화)~20일(목)
*7월~8월(2개월 온라인 강의/주 1회씩 6회)
- 과정운영** *강의, 토론, 발표, 친교
- 교육장소** *하워드존슨 호텔 (플러튼) 1층 세미나실
- 지 원 서** *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 4차원영성최고 지도자과정 11기까지 442명 졸업**
주대준(KAIST 부총장), 성시영(KBS 아나운서), 김성동(전국회의원), 조대숙(변호사, 전 국회의원), 조성민(한양대교수), 김충현(국회의원), 김정택(SBS예술감독), 이현재(국회의원), 손인준(국회의원), 고승덕(현변호사, 전 국회의원), 이양호(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동환목사(베데스다대학부총장),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최명우목사(순복음강남교회당회장), 전호운목사(여의도순복음상복교회), 송영준목사(성산순복음교회당회장) 등
- 기대효과**
* 베데스다총동문화 회원
* 4차원영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총재 조용기목사)
* 봉사과 사회참여(영산조용기자선재단과 연계한 사회 구제활동)
*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및 Net-Work 형성)한국-미국

2. 여름학기 목회학 박사(D.Min) 집중과정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6년 조용기 원로목사님께서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발전을 거듭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부산하의 BPPPE의 인가는 물론 미연방 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교육인가 기관인 CHEA산하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정규대학교입니다.

과정개요

- 목회학박사 입학 절차요건**
* 인가된 대학원의 목회학 석사학위(M.Div)소유자로서 3년이상 목회를 하신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을 위한 목회학 박사과정
- 교육기간**
* 오순절 영성의 토대와 성장: 7월22일(월)~26일(금) 담당교수 Dr. Ken Walters
* 선교사역과 문화적 참여: 7월29일(월)~8월2일(금) 담당교수 Dr. Alan Mc Mahan (목회학 박사 과정은 집중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 입학지원비(\$35 국내지원자 \$280 해외지원자(I-20 발급비용함))**

원서교육 및 접수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및 여름학기 목회학박사 집중과정
* 베데스다대학교 교무처(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 지원서 마감: 4차원영성최고지도자 과정 6월10일까지, 목회학박사과정 7월5일까지
* 홈페이지: www.buc.edu
* 문의: 4차원영성 최고지도자 과정(714)318-9528 목회학박사과정 (714)517-1945